朝鮮日報
夕刊

米織物工總罷業에 毛織勞働者合流

罷業參加總人員六十五萬 九月一日總罷業斷行

【電通華盛頓三十一日發】 全米綿織工業勞働者에 對하야 九月一日부터 罷業을 斷行하라고 命令이 發令된데 繼續하야 今日全米二十萬의 毛織工業勞働者에 對하야 綿織物勞働者와 同一步調를 取하라는 命令이 나리여 바야흐로 全米織物產業罷業이 發生하려는 形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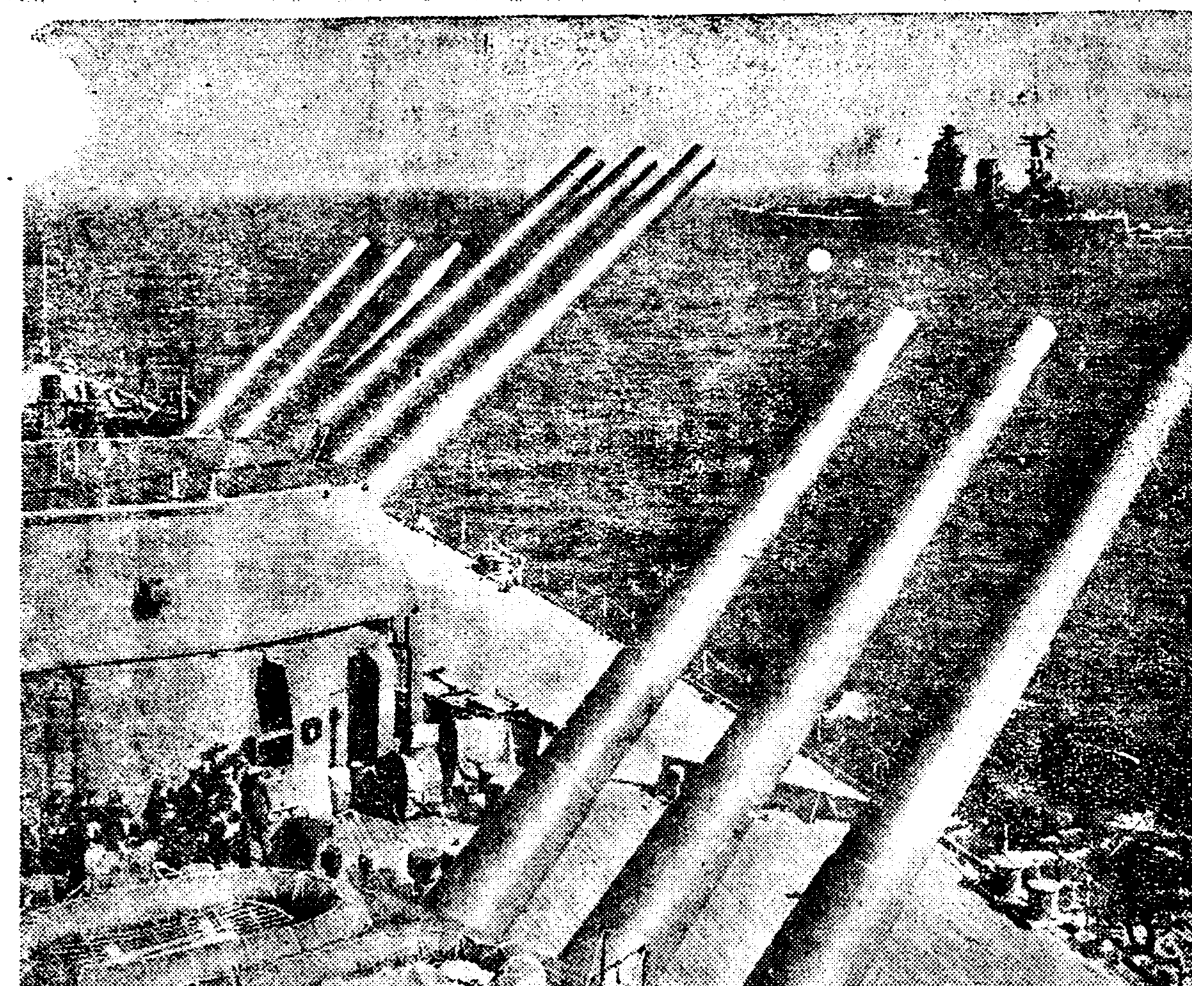
【電通華盛頓三十一日發聯合】 米國織物工聯合組合은 三十一日午後十一時三十分을 期하야 總罷業을 決行하기로 되엿는데 毛織物工十五萬은 右罷業에 合流하기로 決定하고 副組合長, 總罷業委員會委員長인 고만氏는 三十一日左와 如히 發表하엿다

羊毛及 人絹紡工業을 含한 毛織業從業員十五萬은 九月一日午後十一時三十分부터 同盟罷業을 斷行하기로 되여 루즈벨트政權은 參加人員六十五萬에 達하는 一大同盟罷業에 當面하게 되엿다

華府條約廢棄通告 十一月中旬頃?

豫備會商趨移靜觀乎

【東京電話聯合】 來海軍豫備會商에 提示할 日本政府의 軍縮案은 目下海軍當局과 外務省과의 間에서 字句의 修正과 案文整理에 當하고잇슴으로 아마 九月上旬 定例閣議에서 最後의 決定을 보게 될터이다 華盛頓條約廢棄는 日本의 國策에 影響하는 바가 甚大한데 鑑하야 政府는 此를 樞密院에 御諮詢할 手續을 取하기로 意見一致되엿슴으로 只今은 다만 其奏請時期이나 政府는 臨部의 意向은 大體豫備會商의 推移를 愼重注視하야 十一月中旬에 該手續을 取하리라고 觀測된다 即其理由



英海軍週間의 大演習

軍縮會議를 前念하고 몬셀海相의 主宰下에 大海軍建設에 猛進하는 英國은 去八月四日부터 十一日까지 海軍週間이라는 實際演習을 新設하야 前古未曾有의 大示威演習을 포-드마우드港外에서 擧行하야 一般國民의 海術思想을 鼓吹하얏다 寫眞은 이에 參加한 戰艦『로드네이』號前面과 『넬손』號의 同型이니 兩艦이 十六吋巨砲와 그 艦艇의 精巧强事는 世界一의 稱이엇다

軍部對文治行政各廳 對立紛糾를招致

◇在滿機構改革問題

【東京電話聯合】 在滿政治機構改革問題에 對하야 陸軍, 拓務, 外務三省의 主張은 强硬하야 依然對立狀態를 繼續하고잇다면 問題解決은 時日이 遷延됨을 따라 益益困難하게 되여 자칫하면 軍部對文治行政各廳의 對立紛糾의 結果를 招致하야 事態는 重大危機에 逢着할터임으로 拓務省及滿鐵關東廳其他現地各方面에서는 如斯히 主張이 對立되여 各關係省의 事務的, 政治的, 折衝을 遷延할時는 實際問題로 到底히 解決不可能하고 더욱 岡田首相도 滿洲國의 狀況及政府와 軍部의 面目上 此를 昨年滿鐵改造案과 同様으로 同一한 運命에 맛기려하지 안코 結局 其局面打開策으로 條約에 依하야 日滿經濟會議를 設置하는데 끈치고 其他의 機構改革은 더욱 愼重考究하기로 하고 當分間 現行三位一體制로서 進行하리라고 觀測된다

折衝案으로解決 政府는樂觀

【東京電話聯合】 在滿機構改革에 對하여는 陸軍、外務、拓務三省間에 依然命令系統에 對하야 對立하게 되여 그대로 放任할時에는 派生的問題를 惹起할 憂慮가 잇슴으로 林陸相은 三十一日閣議散會後 岡田首相을 兒玉拓相으로 會談考慮를 求하게 되여 이 問題의 解決로 遷延할境遇에는 閣[illegible]來聽取한 陸軍、外務、拓務三省의 意見을 基礎로 愼重考究하야 目下三省間의 意見對立을 보게된 命令系統에 關하여는 陸軍省案을 基礎로 外務拓務兩省의 意見을 斟酌하야 至急折衷案을 作成하야 三省에 提示하기로 되엿다 大體右折衷案도 完成되엿슴으로 于先二日中에 拓務省坪上次官을 招致하야 作製한 折衷案을 檢討하고 折衝을 開始하야 急速解決을 圖하기로 되엿는데 古人折衷案을 三者이 容認할는지 疑問視되여잇스나 政府는 반드시 解決할수잇다고 稱하고잇다

最高二萬五千噸은 大統領絕對反對

十二吋備砲案도絕對不認

日英兩國主張에對한米方針

主力艦單艦噸數

【紐育三十一日發聯合】 一九三五年 海軍會議에 對한 米國政府의 方針은 豫備會商의 開會를 압두고 列國注視의 焦點이 되여잇는데 이點에 對하야 去二十九日 하이드파크에서 行한 루즈벨트大統領과 데비스軍縮全權과의 會見은 자못 注目되여잇다 三十一日 헤랄드트리뷴紙는 右에 關하야 華盛頓特派員의 報道로 左와 如한 記事를 揭하엿다 二十九日 하이드파크에서 루즈벨트 大統領과 데비스軍縮全權과의 會見結果 來軍縮會議에 잇서서 米國政府를 主力艦의 備砲에 關하야 日英兩國이 主張하는 二吋砲의 妥協案으로 最大十四吋砲로 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但十二吋砲는 米國艦隊에 不適하고 따라 米國政府는 絕對容認할수업는것이다 더욱 十四吋砲 나의 折衝이 成立되면 主力艦, 單艦噸數는 얼마쯤 縮少될터이나 英國의 最初提案인 三萬五千噸으로 最高二萬五千噸의 主張은 루즈벨트大統領은 絕對反對를 表明하고잇다

商船隊建競防止 國際會議開催

英外相米國務省에提議

【電通華盛頓三十一日發】 사이먼英國外相은 各國이 海軍軍備의 第二次的防衛線이라는 意味에잇서 益益商船隊建造에 莫大한 補助金을 交付하고잇는데 鑑하야 米國務省에 對하야 右建競防止를 爲하야 國際會議의 開催를 提議하엿다 따라 國務省에서는 右提議에 關하야 目下考慮中인데 右는 軍縮問題와도 間接的連絡잇다고 信한다

遭難列車中에 擧動不審한露人搭乘

當局現場嚴調中

【哈爾賓三十一日發聯合】 北鐵東部線列車襲擊遭難事件은 多大한 注目을 集中하고잇는 此際 三十一日南部線에서 遭難한 列車中 三等車에 擧動不審한 怪露人이 搭乘하고잇든바 慘事勃發同時로 몸넘니 姿態를 감춘 事實이 잇다 그리고 乘客의 말에 依하면

보、파兩國紛爭 聯盟도解決斷念

【아순손三十一日發聯合】 그란차코 領有問題를 사고 보, 파兩國間의 紛爭은 二個年有餘를 經過하엿스나 아직 解決되지 못하야 聯盟도 마침내 其措置에 困難한 狀態로 直接利害關係를 갓고잇는 米國, 알젠틴, 부라질 三個國政府는 今回講和會議案을 提議한바 파라과이政府는 三十一日에 이르러 右三個國案을 受理하고 볼리비아政府도 右提案을 研究中이다 右講和上의 難點은 休戰條件에 잇는바 紛爭解決은 아직도 樂觀을 不許한다

蘇聯盟加入贊成決議 八日理事會서採擇?

十日까지加入手續完了하고 聯盟總會에招請할듯

【電通쥬네브卅一日發】 蘇聯邦의 聯盟加入에 關하야 聞知한 바에 依하면 九月八日에 聯盟理事會가 秘密會를 開하고 聯盟理事國全部가 滿場一致로 蘇聯邦의 聯盟加入에 贊成할 準備가 잇다는 旨의 決意案을 上程採擇하게 될 模樣이다

【電通쥬네브卅一日發】 蘇聯邦의 聯盟加入에 關하야 九月八日聯盟理事會秘密會를 開하고 理事國全部가 滿場一致로써 蘇聯邦의 聯盟加入에 贊成할 意志가 잇다는 旨의 決議案을 上程採擇할 模樣인데 果然 右決議案이 採擇되면 蘇聯邦은 九月十日聯盟總會開會前에 聯盟에 對하야 加入을 申請하는 一方 右理事會에서 採擇된 決議案은 聯盟總會에 廻付되여 總會는 蘇聯邦의 聯盟加入을 可決하고 此를 聯盟에 招致하게 되리라고 觀測된다

米比新關稅에對하야 駐米日本大使館言明

【電通華盛頓卅一日發】 米國國務省은 比島新關稅案에 關하야 日本大使館과의 間에 非公式協議가 進行되엿다는 것을 三十一日確認하고 右協議가 決코 抗議的性質을 含한것이 안이라는 旨를 言明하엿다 他方日本大使館에서는 日本品의 取扱도 含한 比島新關稅案에 對하야 東京으로부터 華盛頓과 마니라에 抗議的通告가 傳達되엿다는 風說에 對하야 左와 如히 言明하엿다

一、그러한 意思表示를 行하라는 訓令은 全然 밧지못하엿다 그러나 以後에 오지도 안흘터이다 東京으로부터 本大使館에 來着한 通知는 單純히 日本은 華盛頓과 마니라關係에 對하야 何等容喙할 意向을 갓지안코잇다

一、그러나 日本은 米國이 現在 日本의 對比島貿易을 阻害치안코 米國과 比島通商條約을 締結하기를 希望하고잇는 바이다

라는 意見을 强調하엿슬뿐이다

圓滿한解決을 米政府企圖

【華盛頓三十一日發聯合】 比島獨立後에잇서 米、比兩國間의 特惠關稅設定案에 關하야 日本政府는 齋藤非代理大使를 通하야 米國政府의 注意를 喚起하고 善處를 要望하엿는대 米國國務省에서는 右要請에 關하야 一切沈默을 守하고 何等意見을 述치안코잇다 然이나 米國政府는 比島의 關稅를 사고 日、米間의 貿易을 攪亂하기를 즐기지 안코 어대케해서라도 圓滿解決을 期待하고잇는데 實業界에서는 比島의 輸出을 促進하는 見地에서 特惠關稅條約의 成立을 强硬히 要望하고잇슴으로 日、比兩國間의 틈에 끼이게되여 對策에 腐心하고잇는 模樣이다

『米比兩國間問題에 日本政府는無關』

米比特惠條約의日本側考慮促進

比島의輿論을刺戟

【마니라三十一日發聯合】 米國比島兩國의 特惠條約案에 關하야 日本政府는 木村總領事를 通하야 比島政府의 考慮를 促進하기로 決定한것은 比島의 輿論을 刺戟하야 特히 憲法制定會議의 一部에 强硬한 非難이 이러나 一領袖는 米比兩國間에 日本政府는 무슨關係가잇는가 고 放言하고잇는 狀態이다 그대로 放置하면 憲法制定會議는 何等反擊的措置를 取하리라고 觀測되는바 憲法制定會議의 代表的意見을 集하면 左와 如하다

라모스氏 日本은 比島가 依然米國下에 잇다는것을 忘却하고잇다 日本은 比島에서 市場을 獲得하고 잇스나 그러나 日本은 比島에 對하야 善良한 顧客인지는 疑問이다

막다린氏 關稅障壁下에는 反對하나 米國이 比島의 利權을 막지안는限 米國과의 間에 互惠的協定을 行하는데 贊成이다

오레고氏 米國이 比島에 對하야 有利한 顧客인以上 米國과의 貿易을 一層重視하는것은 當然하다 比島가 市場을 保持할수잇는 것은 自進하야 特惠를 放棄치는 안을 것이다

右比島의 輿論激化에 對하야 마니라駐剳木村總領事는 外務省으로 아직 何等措置를 拔치못하엿다하야 말하기를 一切避하고잇다

政治軍事實務三權 三巨頭에게分轄

히틀러大統領의計劃進行

【電通伯林三十一日發】 去六月三十日以來의 徹底的나치스黨獨裁를 目的하는 總統은 統制의 强化를 行하기爲하야 새로 運上의 腹心인 巨頭괴링, 괴벨스, 헤스三氏를 擧하야 機能分轄을 圖할 計劃을 樹立하엿다 이 計劃은 着着進行中인데 傳하는 바 三權分立의 內容은 左와 如하다

一、政治、軍事、實務의 分立을 圖함

一、꾀링氏는 現職인 普魯西亞首相 兼聯邦航空相外에 더욱 先般 獨大利公使에 任命된 파펜氏의 後를 니여 副總理로 被任되기 爲하야 目下副總理秘書等의 補佐役選任에 努力하고잇다

一、現國防相불롬베르크將軍은 總統이 憲法의 規定에 從하야 陸海軍의 總司令으로서 兵의 大權을 掌握함에 따러 陸海軍副總司令으로서 軍隊를 管轄할뿐아니라 一般으로 武裝한 團體의 指揮統制의 任에 當하고 事實上軍事의 最高權을 掌握함

一、헤스黨首는 從前대로 나치스黨員에 對한 히틀러의 總統代理를 본다

陸海軍의豫算을 第一着으로查定

標準豫算額보담顯著히膨大 新規要求를大削減?

【電通東京電話】 明年度豫算編成에잇서 最大難關인 陸海軍豫算에 對하야 大藏省主計局에서는 時局에 鑑하야 第一着으로 이 查定에 着手할 方針인데 兩省明年度豫算의 槪算은

一、陸軍省
標準豫算額 約三億圓
新規要求額 約二億七千萬圓
合計 約五億七千萬圓

一、海軍省
標準豫算額 約四億圓
新規要求額 約一億九千萬圓
合計 約六億九千萬圓

으로 모다 標準豫算額에잇서 顯著히 膨大한 巨額에 達하엿다 右는 今年度豫算을 承認한 方針인데서 나온 當然한 結果로서 大藏當局으로서는 이것이 財政上에 맛지 는 負擔에 關하야 깁히 責任을 感하야 兩省에 對하야 新規要求의 計上을 될수잇는대로 節約하도록 諒解를 求하고잇다 따라 查定에 當하여는 相當히 大膽하게 斧鉞을 加할터로 特히 國防의 經濟的合理化에 關하여는 極力兩省의 努力을 要望할것으로 보인다

日葡通商條約廢棄 自十二月一日効力發生

【電通리스본三十一日發】 葡萄牙政府에서 發表한 日本葡萄牙通商條約廢棄는 今後三個月을 經過한後 効力을 發生하게되는 것이다 即十二月一日부터 日葡兩國은 通商上無條約으로 化하게된다

河田書記官長 斡旋役으로出馬

【東京電話聯合】 在滿機構改革은 既報한바와 如히 命令系統에 關하야 關係官廳의 意見이 對立되여 事務的折衝으로써는 打開不可能하게 되엿슴으로 岡田首相은 其推移를 자못 憂慮하고 河田書記官長을 調停에 乘出케하기로 決하엿다 于先一日午前九時 坪上拓務次官을 官邸에 招致하고 金森法制局長官도 列席식힌後 坪上次官으로부터 三省折衝의 經過와 拓務省의 意見을 聽取하고 其對策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는데 拓務省의 意見도 相當强硬함으로 其解決은 相當히 困難한 模樣이다

三士前鐵相問題 法相首相에게報告

【東京電話聯合】 岡田首相은 小島前商相에 關한 事件에 關聯되여 三土前鐵相이 取調에 亘하야 取調를 맛고잇슴으로 其推移를 憂慮하고 一日午前小原法相의 來邸를 求하엿는데 司法省會議가 開催中이라 午前에 會合치 못함으로 法相은 午後二時官邸에 岡田首相을 訪問하고 三土前鐵相의 問題를 中心으로 事件內容을 詳細報告하엿다

北鐵事故後報 死亡者七名

【哈爾賓三十一日發】 昨夜遭難한 列車乘客中 死亡者는 哈爾賓滿洲電業局野球團川崎克己、佐藤善藏、加藤山藏、牡丹江料理店主、高木庄三의 諸氏外에 電報局員인 野球團高崎四郎、西成田利男、大連市小康浦次郎氏도 其後死亡하엿슴으로 結局七名에 達하엿다 그리고 重傷者中에는 笠野又三、軍司正男氏가 잇다

米人一名拉致

【電通哈爾賓三十一日發】 遭難一等車旅客中 米人으로 哈爾賓MGM會社主任 푸손氏는 匪賊에게 拉致되고 哈爾賓在住商人 米人페이카氏는 逃亡하야 哈市에 歸着하얏다

遭難現場은 急速히復舊

【哈爾賓三十一日發聯合】 北鐵當局이 全力을 傾注한 結果 同局南部線遭難現場의 復舊는 意外로 빨리 三十一日正午頃까지에 거이 復舊되엿스나 同日午後一時三十分 哈爾賓發新京行列車는 乘客이 거이 업섯다

各國海運代表網羅 英海運會議所서交涉

【倫敦三十一日發聯合】 英國海運會議所의 剩餘船舶處分에 關하야 各國海運代表를 網羅하야 國際會議를 招集하기로 決定하엿다고 確聞한다 右會議는 國際海運會議의 形式으로 招集될 模樣인데 英國海運會議所에서는 이미 各國의 海運業關係와 交涉을 進捗하고잇다 右會議所의 提案은 來七月十六日英國政府가 海運國에 發한 警告에서 出發한것이나 그러나 政府間의 會商은 考慮되여잇지 안다

震災記念堂에서 追悼會開催

【電通東京電話】 大正十二年九月一日關東大震災의 第十一年記念을 마지하는 今日本所震災記念堂에서는 岡田首相以下朝野名士多數가 列席下에 神佛兩式에 依하야 嚴肅한 追悼會를 擧行하엿다 午前十一時五十八分、牛塚東京府知事는 嚴然히 이러나 犧牲者의 幣를 올니고 式을 終了하엿다는데 數萬의 一般參拜者가 記念堂前에 參集하야 大混亂을 이루엇다

遞信異動發令

非上遞信局長就任後 最初의 人事異動은 今一日附로써 地方局課長以下五十四名의 廣範圍에 亘하야 發令되엿다

辭令

【東京電話聯合】
朝鮮總督府道技師
同 專賣局技師
同 穀物檢查所技師
近藤喜久治
免兼朝鮮總督府專賣局技師

人事·集會

▲植田軍司令官 河村高級參謀 森田參謀、熊谷副官等同伴 昨三十一日午後十時五十二分龍山驛發列車로 北朝鮮地方初度巡視에 就하엿다 十五日歸京할터
▲阮振鐸氏(新京國都建設局長) 入京中이든바 今朝七時發歸任
▲羅晴湖氏(奉恩寺住持) 八月二十九日下午十時長逝、九月二日正午 市內覺皇寺에서 擧行

八面鋒

◇九月一日! 關東大震災紀念日. 우리도 다가치 一分間의 默禱를 할날.
◇九月一日! 第二學期의 開學날 이제부터 정말 工夫에 맛이 날때.
◇九月一日! 念慮되든 二百十日도 大體로 無事, 農民을 爲하야 우선 多幸한일.
◇蘇聯의 聯盟加入을 機會로 弱少諸國에도 加入을 勸誘하리라고.
◇天下에는 凋落의 가을이 왓스나, 蘇聯에는 黃金時代가 오는 셈인가.
◇그러나 한편에 波蘭, 瑞西, 和蘭等이 이 氣勢에 反對한다니, 세상에 順한일은 업는듯.

實用英語科、英文打字科
英語講習院補缺員募集
九月九日 京城 西大門町二丁目

京城實踐簿記學院 生徒募集
●英文、邦文科卅名 ●商業科
タイピスト女學部 生徒募集
●新學期開始 ●校舍新築 ●太平通大漢門前

●本科晝夜(一、二學年若干名) ●專修科晝夜(商業科)各五十名
生徒募集 京城中等公民學校
●九月新學期開始

독일제
원조 조선세창갓표바늘은 물끼잇는손으로 (강철)로대도조금도변치안는시이특색입니다
純正商標見本 世昌 CARL WOLTER & Co. KOREA
仁川府支那町 直輸入販賣商 同福公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四 京城總販賣店 李泰漢商店 電話本局二五一三番

고무신은 거북선
京城東大門外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
平壤支店

平壤秋季競馬大會
場所 船橋里新設競馬場
時日 九月一日(土)二日(日)三日(月)四日(火)六日(木)七日(金)八日(土)九日(日)
勝馬投票券、單勝=複勝共金貳圓
主催 社團法人平壤レース倶樂部

日本一の産額 日本一の品質 日本一の信用
イカリソース
◎目下ビスコ景品附特賣中◎
イカリソース二合入一瓶買上마다
酵母菓子 ビスコ 一個式進呈
一、은菓子界의覇王
一、은ソース界의明星
더업는德用的買物???
只今곳用命을願합니다.

조양그물 낙시제구 投網
吉備商會 京城新町

入國制限을反對 在京中國人街罷市

西門署는開市勸告其他는放任

午后엔居留民大會

총독부에서 금일일부터 조선내에입국하는 중국인로동자에게 조건을부치어 입국제한을 실시하게되엇슴으로 재경중화민국총령사가 총독부에 항의하얏지 잇섯는데 실시당일에 경성부내 서소문정(西小門町)장곡천정(長谷川町)관수동(觀水洞) 태평통(太平通)북미창정(北米倉町)등각거리에서 포(布)상、료리점、식료품점、잡화점、호떡집등 각색장사를하고 잇는 중국상점들은 일제히상점문을닷고 철시를하야 중국인로동자 조선입국제한실시에 대한 반대시위(示威)를 하엿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목촌(木村)서장이하 도변(渡邊)경부주임 길야(吉野)고등계 주임이하 사법계、고등계형사와 정복경관등 정사복경관 이십여명이 자동차를 모라 관할서소문정으로 출동하야 집집마다 차저 다니면서 모다상점문을 열게하야 오전열한시반까지에 전부 상점문만은 열엇다 그러나 그들은이구석저구석에서 삼삼오오로 모히어서서 수군수군하고 잇슴으로 만일을념려하야 경관대는 꼴목마다지키고서서 엄중한경계를하고잇섯는데 경관대가 출동하야 상점문을열게하는판에 서소문정일대는 자동차도 통행할수업시 한참동안 대혼잡을일우엇다 그런데 본정경찰서와종로경찰서에서는 그들의휴업에대하야 전연간섭하지안코 그냥방임하엿슴으로 장곡천정、북미창정、명치정、관수동등의 중국인거리는 그대로문을닷고 휴업을 계속하엿슴으로 자못쓸쓸한 광경을 일우고잇섯다 그리고동오후에는 령사관내에서중국인거류민대회를 열엇다

華商總會서指令

그들이 이와가치 한꺼번에 총휴업을 단행한것은별안간에 개별적행동으로 한것이아니고 화상총회(華商總會)의조직적 지령(指令)이잇섯기 때문이라한다

三千餘名이會集 對策大會를開催

大會決議를總領事通하야 總督府에緩和要求

중화민국거류민대회는 일일 오후한시부터 회상인령치정 중국령사관에서 거류민 삼천여명이 모혀서 개회하야 기세를올리고 잇는데 소관본정서에서는 호곡(戶谷)서장이하고등계원이총출동하엿고 서대문서 고등계에서도 다수형사가왓스며 그밧게정복경관이십여명이 출동하야 회장내외를엄중히경계하야자못무시무시한 형세를 이루고잇다 중국인로동자의 조선입국 보증금문제는 그동안 경성재류중국인이수차 회합하여 그대책을강구하엿스나 아모런 효과적결과를 보지못하엿슴으로바 이문제를 철저히해결하기위하야 경성주화상회(京城中華商會)의발기로 경성재류삼천여명의 중국인을망라한 대책회의를 일일오후한시부터 시내본정 중국령사관에서 개최하게되엇다

회의의내용은 중국로동자의 입국보증금 철폐를 토론하려는 것은물론이나 그중에도 새로히 조선에 드러오는 로동자문제도 문제려니와 조선에 근거를두고잇다가 고국에 잠시다니러갓든사람이 도라올때에 그문제가 더욱 곤난하게될으로 이런제도 려당히 해결하도록하고 또 확실한직업을가진자외에는 입국을 허하리라는점에 대하여서도 이번대책회의에서 토의하야 되도록 총독부에서 금번방침을철회케하던가 만일그러치못하면 일부분의 개선이라도 하여달라는 것을 총령사를통하여 총독부에 요구하리라한다

決議文

오후세시 거류민대회에서 다음과가튼 결의를 하엿다

一、入國保證金制度를撤廢할것

二、朝鮮에서 本國으로갓다가 다시오는사람에게領事의證明이有할時는保證金을免除할것

三、以上二條中 한가지라도 드러주지안흐면 本國各團體에 打電하야 內外呼應하야積極的으로 運動을이르킬것

一九三四年九月一日

京城中華人居留民大會

示威는안이다 華商總會鄭氏談

이에대하야 중화총상회(中華總商會)정유강(鄭維芬)씨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무엇보담도 큰문제는 조선에 잇다가 고국으로 다니러갓든사람이다시 돌아올때 둘째는확실한직업을 가진자라야 상륙식힌다는조건입니다 중국 로동자의 대부분이 석공과 채소상사를하려고 오는것인데어떠케 확실한 직업을가지며 또돈 일백원이나 그러케잇스면 무엇하려 멀리조선으로 오겟슴니까 철시에대하여는그것이 결코 시위운동은아닙니다 혹그러케오해를 밧기도 쉬우나우리는 시위운동을 하느라고 철시한것은아닙니다」하고 철시의 시위운동이 아님을극력 언명하엿다

領事館으로는不關事 金領事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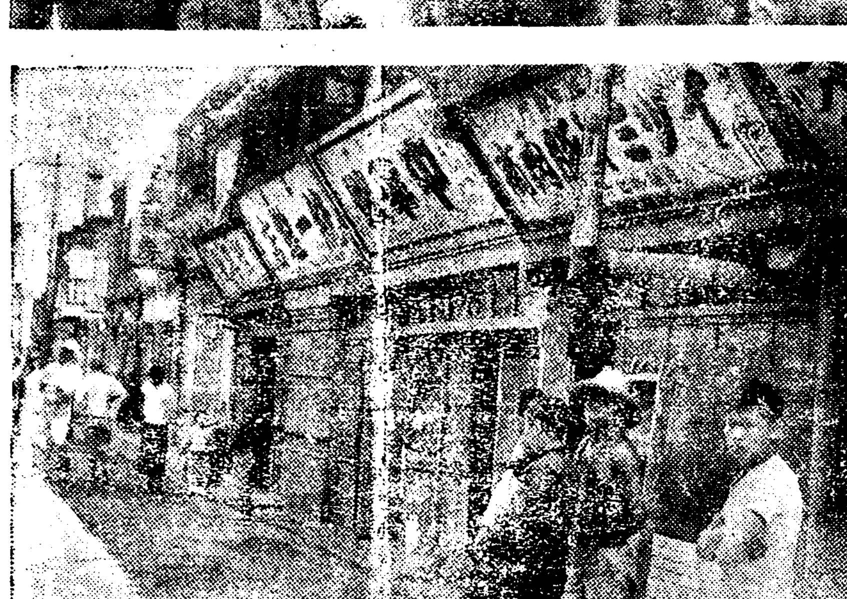
당일중국령사김조혜(金祖惠)씨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령사관에서는 단지 장소만빌여주엇지 거기에대하야 아직 아모런 내용도 자세알수가업슴니다 그러나 비공식으로말하건대 총독부의 그재정의철회요망하는 결의를하여 가지고 령사관을 통하여 총독부에제출하도록 하려한다고 합니다 철시에대하여는 처음듯는 말인데 아마일부분이겟지요 그러나 그것이 시위운동은아닐 것입니다」

緩和不可能 總督府當局者談

별항과가튼 중국인로동자 입국제한규제로 시내 재류중국인들의 시위행동과 총령사관측의항의에대한 총독부당국자의 의향은다음과갓다

령사관안에서할회합에는간섭지는안는다 그러나 일단령사관문밧그로 나오게되면 취체할터이다 그리고 취체를완화하여달라는데 대하야는 본래 중국인로동자취체규측이전부터잇서 재래에는 다소간관대하게취급한것을 이번에는 좀 엄중하게함에 불과하다 최근 조선내의 중국인로동자는 일년에 삼천명씩이나 증가되고 잇서 이이상더드러오면 조선로동자의 수급(需給)을 조절할수업게되야 조선로동자를 압박하게됨으로 총독부로서는 조선자체의 정세로보아취체를 완화할의사는 전연업다



▲領事館構內에 모인 中國人과 長谷川町의 撤市

營口經由의 密輸出新線

朝鮮側과連絡取締

【營口一日發聯合】 만주사변 이래 조선방면으로부터안동(安東)봉천(奉天)을경유하야 지금(地金)이 중국에 수출되는것이 매우만허일개년일백오십만원의 거액에달하여 그대부분은 영구(營口)로부터남북중국에반출됨으로관계당국에서는밀수방지에 노력하고잇든바수일전에영구세관에서 이수출경로를 발견하고 일당을체포하야 목하비밀리에 취조중인데 사건관계자는 의외에다수에달하야 조선방면에도 파급하게되리라한다

琿春同胞들도蹶起 八十餘圓收合托送

至誠에는水害同情

해내해외를 물론하고 삼남리재민을위하야 우리동포는 무의무가의 그들을위하야 곤난한가운데도물구하고 나날이 동정금품이 본사로락송되여 진실하게 리재민을 동정함은 만천하독자와함께 경하할일이어니와 이제 다시 서북간도에이민하야 겨우 호구를하고잇는 훈춘(琿春)지방동포들도 집집마다 거금한돈 팔십칠원구십칠전을 본사 훈춘지국이 대표하야 본사로락송하얏다

陵谷元堂面 職員들의義捐

경의선 릉곡(陵谷)역전에 잇는 원당면(元堂面)의직원일동은삼남대수재리재민을 위하야 현금 삼원오십전을 거금하야 비상사의 이때에수모나물론하고 말치하야 그들을구제하려는 뜨거운 열성으로 재민에게 보내달라고 본사릉곡지국으로의탁하얏다

崔麟氏를中心한 新團體"時中會"

現在는政治的色彩가업스나 今後動向이注目處

금년봄에 천도교(天道敎)거두 최린(崔麟)씨가 중추원참의(中樞院參議)로된러가게되자 세상에서는 천도교신파와 최린씨의 정치적동향이 장차 어떠케구체화할것인가 비상한주목을 끌고잇든바 최근그일파의 운동은 점차 구체화하야 조직체의구성을보게까지되엇다 즉팔월 삼십일 오후오시부터 시내 계동(桂洞)최린씨 집에 김사연(金思演) 조긔간(趙基栞) 장직상(張稷相) 박희도(朴熙道) 정대현(鄭大鉉) 하준석(河駿錫)리군오(李君五) 정광조(鄭廣朝)김대우(金大羽) 박준영(朴駿榮) 최석련(崔碩連)정응봉(鄭應琫)주종의(朱鍾宜)씨등십팔명이모히어 정신작흥과 생활개선을강령으로한 시중회(時中會)라는 것을조직하엿다한다 이것은 아즉정치적단체는 아니나 불원간에모종정치적 운동단체로, 발전할모체(母體)로현재는회원은이십명에불과하나다시회원을전형하야입회식힐터이라는데 일반사회운동이 혼돈한 상태에빠저잇는현하조선에잇서 이시중회는어떠한길을거러가며 어떠한형태로발전될는지일반은 비상한주목을하고잇다

產婆役은兩局長

昨夜는兩局長을招待開宴

十月中에는結黨式

전녀와가치 시중회라는 단체를 결성한최린씨를 중심한일파의 운동이 조직체까지 구성됨에는 지전(池田)경무국장과 우도(牛島)내무국장이 중요한산파역으로 만흔수고를 하엿다하야삼십일일저녁에는 시내청운동(淸雲洞)료정(料亭)백운장(白雲莊)에서지전 우도량씨를 주빈으로한 간친회를 열고긔세를올리엇는데 시중회간부로서는 리사회가최고긔관으로 최린박영철(朴榮喆)김사연 정대현씨등네명이 리사가되여잇고 사무집행 긔관으로서는 리정섭(李晶燮)박준영량씨가 피선되엇다 그리고오는 십월중에는 정식으로결당식을 거행하고정치적 단체로서운동을전면적으로전개하게되리라한다

當分間은 笑而不答 某幹部談

별항과가치 시중회를 조직한최린씨일당은 당분간 함구물언주의로 누가뭇거든 오직소이부답(笑而不答)이라는날뿐인데 이회의 중요간부모씨는 다음과가치 말하얏다

「아즉 말할수업다 멀지안어전적으로 표면화할때가 잇슬터이니 그때가되면 다알것이다 지금형태는결국수양단체비슷한것에불과하다」

斫殺奪金한 強盜犯에死刑

【新義州】 귀보=지난일월십이일밤 여덜시경 선천군남면석화동(宣川郡南面石和洞)에잇는 게이근(桂彝根)(三三)을독긔로때려죽인후 현금 이백오십원이십삼전을강탈한동동에잇는살인강도 계하근(桂河根)(三五)에 대한 공판은 지난이십구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열고 국지(菊地)재판장으로부터 검사의 구형대로 역시사형을언도하엿다한다

西洋生菓子 本町 金剛山 電本四二四五 곳 配達합니다

俳優를登錄하야 劇團統制를企圖

과연어떤것이될런지몰으나 鍾路警察에서考案中

영화통제의 제일보를 내드된당국에서는 그바침의 적극적강행에 노력하고잇는데 일방영화와 함께 대중오락의 쌍벽이라고할 연극단체에 대한 통제는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립된방침이라고는업섯다 이에관내에 조선극장(朝鮮劇場)단성사(團成社)의 두극장을 가지고잇고 이두곳을 근거지로하고 집산하는 사오개의 극단을 항상 그 관할아래 두고잇는 종로서 에서는 지금까지 연극단체의동제의 물비로홍행중 배우의 이동및상연중 배우의 언동의 무질서등으로부터오는 폐해를 절실히느끼고 금번연극단 통제와 근본방침을 안출하야 이를도보안과에 상신하야써 무슨형식으로든지 연극단체통제의 법령화를 기도할모양이다 방금 종로서에서생각하고잇는 연극단 통제방침의 골자를 이루는것은 소위감찰제도(鑑札制度)의 시행으로서 즉 배우는 소속극단의 일흠과함께 그일흠을 소관경찰서에 등록하야 무제한이동과 밋그언동의탈선을 방지하려는것을 안목으로 한것이라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弱한低氣壓은 瀨戶內海에잇서서 徐徐히東進하고잇고高氣壓은 北海道東方海上에서 日本海로擴大되여잇는데 其勢力은弱하다 全朝鮮大槪흐리나 北朝鮮은處處에小雨가 잇다 明日은大體天氣가조타

最高 二十七度一

正午 二十四度五

病든老人을逐出中死亡

巫女는警察이引致 미신에빠저인정을몰으는

시내돈의동(敦義洞)일백이십번지무녀(巫女)한갑득(韓甲得)(三五)의집에세방사리를하고잇든 김교진(金敎振)(四四)의 아버지 김봉히(金奉熙)(六六)가 얼마전부터병이드러서 누어알타가 삼십일일아츰 열시경에 이르러는 드디여 운명하는형편에 이르자 집주인무녀 한갑득은 자긔집에서사람이 죽으면 신령한그영업에큰해가 잇다고하면서 그냥알른사람을 쫄고대문까지 나오자 병자는그만 운명하고마럿다 이보고를 바든종로서에서는 곳한갑득을인치하고 방금 취조중이다

延專元漢慶校長 二日朝入京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교장 원한경(元漢慶)씨는 작년 ……에 안식년을 어더가지고 본국에 돌아갓다가 일년만에 정든조선땅을 밟게되여 명이일오전 여덜시이십분 경성역착렬차로 귀경할터이라한다

結婚이하고십허서 主人이되엿스나

고용인이줄알고처가도망가 畢竟은警察에說諭

장가를기위하야 고용사리 하는 신분으로 주인인체하다가 가면(假面)은 벗겨지고차듸찬결혼해소로꿈을깨즌결혼실패담의하나……시내내자동(內資洞)이백번지시탄상문순길(文順吉)의집에고용되여잇는류진봉(柳振鳳)(二○)은 결혼는하고 십흐나그의 가난한처지를알고는 감히 그의 결혼신청을수락해주는용감한처녀가천하에 업슬것을 짐작하고 한탄하든끄테그가몸을부치고잇는그신탄상점을자긔의상점이라고 소개하는시내홍파동(紅把洞)오번지의 십사호 김옥란(金玉蘭)(一八)과지난삼월십일일에백방으로구면하야성대한결혼식까지 거행하고 전기시탄상점을 제것처럼 가장하고 지내오든바 …… 남편을 그전주인이라고만 알고잇는 어린안해의 허영심으로부터 오는 부담은 남편을너무괴롭게하야 그로하여금 집에마음을부치지못하고 술과 방노린에잡기게 하엿다 이러는동안에남편의 가면은 아주벗겨저서 한낫그상점의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알자 수일전에 여자는그만집을 나와버렷다 남편은경찰에 수사원까지 제출하야 도망한안해의 행방을찻고 잇든중 안해는제작일을변 기다리는남편의 집으로 도라왓다 그러나반가워하는 남편의면전에 그녀자가 던진것은 쌀쌀한결혼해소의 선언이다 그리고는 그의장롱 패물등속을 달라고 강청하엿다 종로서에서는 그청을완강히 거절하자삼십일일오후 녀자는 소관종로서에나타나서 남편을거러 설유원을제출하엿다

反軍과接戰 一名이戰死

【奉天三十一日發】 통화수비대장(通化守備隊長)정상대위(井上大尉)지휘부대는토병숙청때문에 이십칠일 통화를출발이 십구일 오전열한시반 통화의서방십리되는 고려성자에서 약삼백의 공산군계합류 토병을맛나 이와대전한 결과 상등병삼호여수차(三戶與手次)는 전사하얏다

運動競技

養正凱旋軍 釜山通過 元氣旺盛히京城에

【釜山支局特電】 養正高普凱旋陸上選手九名은 監督金守基氏引率아래 今二日朝 釜山入港의連絡船으로榮譽의優勝旗를 휘날니며 그리운내땅의첫거름을 밟엇다 埠頭에는 釜山體育界關係者와밋朝鮮日報支局員들의熱烈한歡迎이잇섯스며 一行은자못元氣旺盛하야 午前八時二十分釜山驛發列車로京城으로 向하얏다

京城實業 野球리그 來八日부터

京城實業野球聯盟秋季리그戰은 來九月八日부터 京城球場에서 開始할터인바 競技日程은다음과가티 決定發表하엿다

▲九月八日(土) 鐵道……京電(一時) 殖銀……遞信(三時半)

▲同九日(日) 京電……府廳(一時) 遞信……鐵道(三時半)

▲同十二日(水) 府廳……殖銀(四時半)

▲同十五日(土) 鐵道……府廳(一時) 京電……殖銀(三時半)

▲同十六日(日) 遞信……京電(一時) 殖銀……鐵道(三時半)

▲同十九日(水) 府廳……遞信(四時半)

中等柔道 來八日YMCA

東京留學生會主催

東京留學生武道會主催 第七回全朝鮮中等校團體柔道大會는來九月八日午後一時부터鍾路靑年會體育館에서 擧行할터인바參加希望校는 來七日까지 YMCA體育部나 壽松洞朝鮮研武館으로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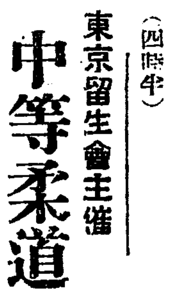
徽新學校補缺生募集

一、募集人員第二學年若干名

一、出願期日九月四日限

一、試驗期日 九月五、六兩日午前十時부터(京城蓮池洞一)

認可 電醫



鮮內唯一 養成

物理醫療師特典生募集

◎最新物理醫學全科教授 院長東京電醫創始學長

◎近近規則發布되여도本院卒業生은開業資格잇음

開院一週年記念키爲하야大特典을與함

但願書受付順으로三十名限하고速히願書提出하라

『規則書郵送함』 業書로申込하시요

京城黃金町三丁目三四四

認可 京城電醫講習院

朝鮮高等物理醫學校創立事務所

원료물감

德天洋行

京城府茶屋町六番地

振替京城壹四六壹壹番

에노진

自轉車의陳列販賣店出現

現金正札附廉賣主義

九月의奉仕車

エースリー號自轉車(二百臺限)

金廿四圓八十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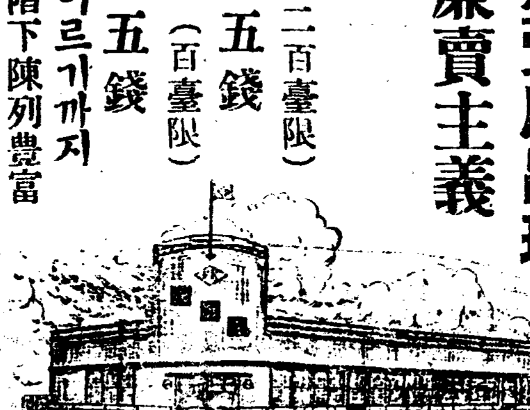
ピーエル號自轉車(百臺限)

金三十五圓十五錢

其他自轉車及部分品에이르기까지

階上階下陳列豊富

中古自轉車一臺八圓부터二十圓까지在庫豊富



自轉車商 京城南大門前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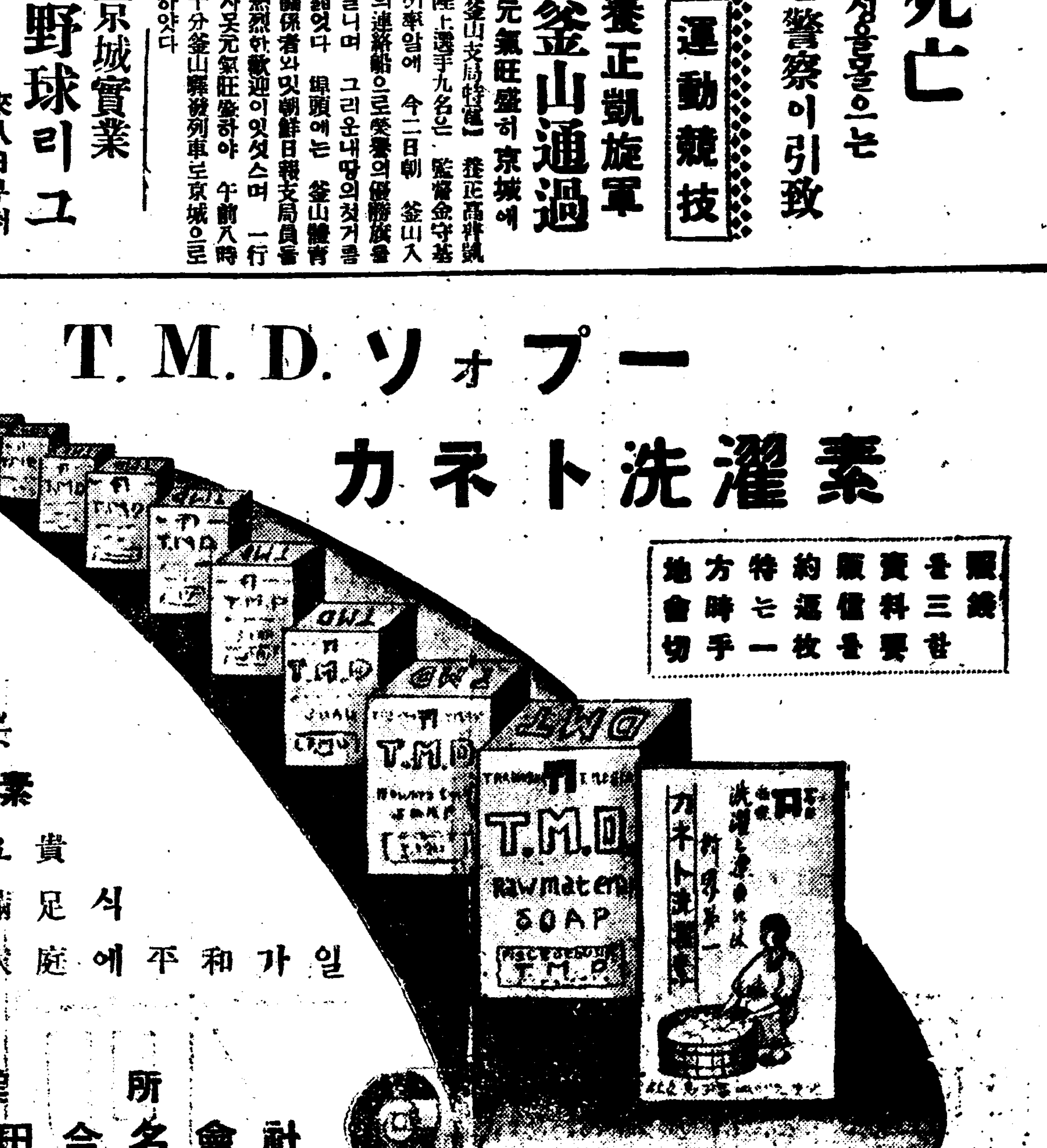
ツヅキ商會陳列販賣所

電話本局{二三四一〇番 二三四二〇番} 振替京城五一五二番

T.M.D.ソォプー

カネト洗濯素

地方特約販賣를照會時는返信料三錢切手一枚를要함



新秋를

마지할때洗

濯에는업지못

할カネト洗濯素

를잇지마시요貴

下의마음을滿足식

힐때따라서家庭에平和가일

을것입니다

營業所 富田合名會社 京城鍾路一丁目五三

電話光化門一三一一番 • 振替口座京城二二九八番

學藝와家庭

批評과科學
『現代主智主義文學理論의建設』續篇 3
崔載瑞

우리가 詩創作의 原理로서 혼이 인스피레이슌(靈感)이라고 불르는것은 實로 이內部暴動이다. 그러면 이 인스피레이슌—옛날詩人들이 저만큼 渴望하고 祈수하든 뮤우즈(詩의女神)의宣託—은 어찌해서 이러나는냐?

現代科學은 이神秘하고 貴重한精神作用을 어떠케說明하느냐? 그것은 無意識가운데에 潛在하얏든 만흔觀念이 偶然히 意識面우에 나타나는同時에 電光石花的으로 서로聯想하야 理想的인結合狀態를呈하는 瞬間的活動의 現象이라고 精神分析學은 說明한다. 리이드는 自己自身의 體驗을 基礎로하야 다음과가티說明한다.

『위선 우리는 모든것을 一定한形式下에統一하라는 主勢的感化力—即 形式이나思想의

潛在的原型—을 가지고 잇다. 그다음에 어떤 이메지(心像)나記憶이 偶然히 活動속에 나타난다. 이들 이메지나 記憶은 그瞬間까지 無意識的精神內에 潛伏하고잇섯든것이다. 그리고 이偶然的이메지는 바야흐로興奮되 興味에 批判을바더 어떤 은選擇되고 어떤것은 拒否된다. 그래서 選擇된이메지는 主勢的感化力에依하야 發展되고 變容된다. 만일에 感化的傾性이 별안간 힘잇게 興奮되면 우리는

情緒의狀態를 가지게되다. 이情緒狀態는 最初의偶發的이메지에 뒤를니어 이러나는 모든 이메지와觀念에對한 强烈한意識狀態를 세伴한다. 이것이即 藝術的恍惚(엑스타시)의狀態이다. 이때에 모든 이메지는 原型即感化的傾向에 奉仕할 모든 軍裝을 차리고 숨어잇든곳에서 한아씩 한아씩 뛰여나오는 듯십다. 그러나 이恍惚狀態에 잇서서도 이메지의選擇과廢棄는 아직도 繼續하고잇다고 나는 생각한다. 何如튼

普通으로 創作活動은 이를表現할正確한말 或은 이메지가 發見될때에 終作된다. 그리고 充分한創作過程은 이許多한 基本的創作瞬間의 總和에 지나지못한다. 이것으로써 創作過程一般은說明된다. 그러나 藝術家의 所謂創作이란 이것뿐이냐하면 決코 그러치안타. 우리는 잘낫거나 못낫거나 藝術家가 普通사람과다른點—即 흔히變態性이라고 의컬어지는特異性—을考慮치아홀수업다. 이特異性은 앗가말한

主勢的感化力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形式이나思想의原型이되는 感化性이란 科學的으로볼때 도데체무엇이냐? 푸로이드一派는 藝術家의病的精神狀態는 멀리幼少年期에서 形成된것이라고說明한다. 『理想的美에對한 藝術家의 이熱望을 分析하야보면 다음과가튼일을 알수잇다. 即 이熱望의刺戟이된 主原은 第一次的衝動이라기보다도 오히려 反動—物質的生存의

粗野하고 不愉快한方面에對한 反動—이다. 그리고 이反動은 心理發生的으로보면 最初의 排泄的興味에對한 幼兒의 反動으로부터 이러난것이다.』 그러나 이가티 特殊한假說로써 微妙하고 多樣하고深遠한 藝術表現一般을說破할수는업다. 이點에關하야이드라아의 優越本能의說이 더욱適切하다. 그에 依하면모든神經症은 優越感情을獲得하기위하야 劣等感情으로부터自己自身을解放하라는試圖라고생각할수잇다. 이劣等感情은혼이

家族生活內部에서 이러난다. 그리고 이에代償이될 優越感情은 恒常 神與一體를 理想으로 삼으리만큼 그性質이 幻想的이기때문에 不可不 無意識가운데에 숨어잇지안홀수업다. 그것은 團體生活의 論理的標準과 依德과 同情으로말미암아 이가티抑壓되여진다. 그潛在的 優越感은 누구나 다가지고 잇지만神與一體의理想을 實現하게 特徵하는者는 即藝術家이다. 그래서 그는 항수업시 實際生活을떠나

生活中의生活을 探求할으로써 安滿한다. 그리고 그가 特別히藝術家인것은 그가 이內面的生活에賦與하는形式과 典型的完成의 德으로말미암아서다.

푸로이드도 이說을支持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藝術家란 너무도喧嘩한 本能的要求에 졸리는사람이다. 그는名譽와 權力과 富裕와 高名과 女性愛에到達하기를 憧憬한다. 그러나그는 이들愉悅을 成就할

手段을갓지못하엿다. 그래서 그는 채우지못한 慾心을가진 누구나와마찬가지로, 現實을떠나 그의모든 興味를 幻想의生活안에서 自己願望을 創造하는데로 보내고만다.』

第二質問—文學의職能에對한 解答은 임이以上創作原理의說明가운데에 一部分包含되야잇다고나는생각한다.

怪奇뉴-쓰

【上】『나브러버·스』의 포스트몰템會라는 密致的團體에서는 그會員은全部死後 그骸骨을 會에寄贈하야 會合마다 死亡한會員의 骸骨을主賓으로 晚餐會를行하는光景 【下】는지난八月三日米國加州廣術師競技大會에서 아마추어-면 -가餘興에뮈여드려多數의 專門家를 놀래게한코-라·렛지-孃의 『머리업는춤』의 그로테스크한신이다

健康線上異常다
찬바람에생긴 위장병과감기
애기들몸단속은되엿소?
民衆醫院內科長 金重呂

춘하추동 사시를 통하야 언제나의생에대하야 주의를 게을니하면까만은 특히환절긔에는 더욱주의하서야되며 또이환절긔에 누구나 위생에대한주의를게을니하리까만은 특히어린아히들에게 한하야는 각별히 주의를식혀야합니다. 제가 지금 새삼스러히 환절긔에대한위생을 더욱별이 주의를식혀 드리고저할뿐입니다 그런대 이환절긔는 그시긔를따라 각각좀다른점이잇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치웟다가더워지는환절긔와 또는더웟다가추워지는환절긔등의 여러가지가잇습니다. 그러면 이환절긔에는웨 특별이 위생에대한주의가 극히필요하며 그러고웨다른시긔보다 전념병이나 흔은다른병이 더만히류행이되느냐 한번알아둘만한일이올시다

그래서 지금이에대하야 잠간말슴드리려고합니다

一、기후에급변, 여름이지나고 가을이닥치면 무덥든기후가 서늘하여집니다 그런데가을기후가아츰부터 저녁까지한결가리차진다면 무슨 큰장해가안생길것입니다. 나는 초가을기후는 그러치가안코 아츰저녁은 매우서늘하고 나제는 녀름보다도 오히려더더웁니다 그러면 아츰저녁에는 두터운옷을넙고 나제는엷은옷을입어야될터이나 잇지 우리조선사람경제로써 이와가티할수잇슬잇까? 그래서 몸에닥치는 기후가 하로에도 맷번식이나변동이 만흠으로 호흡기병측감긔폐염가튼병에걸니기쉽습니다 그러고 밤에잘때 몸이차게되기가쉬움으로 더욱온갓병에걸리기쉽습니다 이호흡긔병보다도더걸리기 쉬운것은 위장병입니다 이환절긔에 배알이와설사병을 아맛나는이가 별로적으니그것은 나제몸시 더울때찬음료수찬음식을만히먹고마사게될니다 그후저녁에 갑작이긔후가차게되고밤에잘때 몸이 차게되면급성위장카다루가생겨설사증과복통과 심지어 이질까지걸리게됩니다

그중어린애들은 더걸리기쉽습니다

이에대한예방과대책

호흡기병에 걸리지안토록하시라면우예잠간말슴드린바와가티 아참저녁서늘한때는 옷을기후에맛도록 솜옥겹게닙어냉기가몸에 침습치못하게하고 나제더울때에는 엷은옷을맛구어입어서 될수잇는대까지몸에닥치는기후에 급변을 바지하시며 또위장에걸리지안토록하시라면 나제아무리더우서도 여름과가치찬음식과 찬음료수를금지하시며 납분과실을 엄금하시며 더구나 쉬지난과실등은 절대로잡숫지마시고 음료수는 반드시한번끄린것이안이면 마시지말며 밤에주무실때에는 몸을 특히 복부를차지안케따뜻이보호하며 특히어린아해에게대하여 더욱주의하서야합니다

몸에땀나거든 곳써츠시오
조심할것은 감기
병자의몸갓는법

땀에 저진내복을 그냥입고자면감긔에 들립니다

병자는 몸의저항력이약함으로 더욱감긔들리기쉽습니다

그럼으로 땀이 흘러서내복이저젓슬때에는 곳땀을씻고내복을밧구어입혀야합니다

땀은 부드러운타올을따뜻하게덥혀가지고 전신의땀을얼는씨처버리는것이 조습니다

그리고나서 준비햇든내의를얼는갈어입히십시오

그러면 병자의옷이나 자리는언던것이 조호나하면 병자의옷은 아무조록가추가적은것 끈이적은것이 갈어입히기에도 편리합니다

병자의 의복을 빨니갈어입히는데는 한쪽부터 벗기고는곳새옷을 그쪽으로 입힙니다

이러케해서 옷을모다갈아입히면 등밋흐로 손을너어서겹친데를 펴듯습니다

자리를 박굴적에도 가튼방법으로 먼저반만을 말어노코새자리를 드리깜니다 다음에남어지의절반도 가튼방법으로박굽니다

다음에는 병자의몸을 청결하게하는법인대 입만은 매일닥도록 해야합니다 만약양추를자긔손으로하지못할 정도이면 『까-제』로닥어주십시오

그리고수족도 아주중한병이안이면 미온탕이나 『알콜』로씨처주십시요

한가지주의해야 할것은 씨츤후에 잘말리는것을 이저서는안됩니다

젓못먹는아이의음식은?

問 금세살넘되는 남아인대 젓을못먹습니다 밤이되면은 배가곱하 울기도하고 점점아해가 상합니다 그런데 엇더한음식을 먹이며 일일에몃회식이나 맥이면 적당할가요? 세새로나지도안는젓을 빨니기도하오나 좃치못하겟지요? 그리고계란과 밤(栗)과자가튼것을 간식으로맥이면조흘가요 밥은 어등아먹는보통밥을맥이도위에 하나얼슬까요? 지금어떠케하면건강하게 양육할는지 고민하오니 자세히하교복원하옵니다(一讀者)

答 만두살인고로 어른과갓갓이하로에 세번식먹는 것이좋습니다 음식은물론 어른파갓치먹이되 아이는 발육기에잇는고로 어른보다영양가(榮養價)가 만흔것을먹여야 잘발육됩니다 계란갓튼것은 밥먹을때에 먹이시고 밤그외에약간의과자등은간식으로 하로에한두번은 주어조으나 밤먹기전에 주는것은 좃치못합니다 지금것 젓을빨니는것은 좃치못합니다

大城小李兒科研究所 聖鳳

염불이빠저

問 저는금년이십이세녀자이온대 십륙세시에 녀아를조산하얏는대 그때무거운것을들엇던지 하초가『염불』이삽분지님나오더니 누으면 들어감니다 그후 이년되든대또순산하얏스나 지금은 계란만큼나오고 또 누어도들어가지안코 늘려야 들어갑니다. 그관계인지 오세아가 잇서도 생산치못하고 겸하야 월경시도대단복통이나며 혈색도 분량합니다. 하초관계로 생산치못하나요 또는관계하고 월경부족으로생산치못합니까. 하초를고치자면 자궁수술을해야합니까. 수술하자면여러칠이나 요하며또는 돈은얼마나듭니까. (慶州 一讀者)

答 자궁 脫出症(子宮脫出症)이라는 병인데 이병은당신파가터 아이를난뒤에 무거운것을드럿든지 혹은머리우에 무거운것을 이엇든지 하는때에 잘생기는병입니다.

이병이잇스면 월경부조와월경통이 오는수가만코 또임신하기가어렵습니다.

수술을하야 약어싱혜이면께끗하게 곳칠수잇스며 비용은전부합해서 약일백오십원가량이면 될줄압니다

大學病院婦人科 金鳴煥

海外뉴-스
蘇聯에서 따-윈全集刊行

【모스코바發聯合郵信】 쏘베트聯邦國立醫學文獻出版所에서는 今回, 進化論의元祖따-윈의全著作을 完全히 收錄한十二卷짜리의全集을 出版하기로되엇다 원따-윈의著作은 從來로시아에서는 出版된 일이업섯다

學生通信
朴淵山城에서 (3)
城大文學部 具滋均

L君! 朴淵山城하면 君은아마 朴淵瀑布만을 想하리라. 그러나그것은큰誤解요. 朴淵瀑布도 그背景인 이山城의雄大한偉觀이잇슴으로써絕景인것이요. 이山城의山明水麗한 絕壁乾坤과朴淵瀑布가서로도움고서로 힘님어서 萬人이贊揚하는우리開城金剛을이루는것이아니겟소. 비록規模는적을망정 나는決코 金剛山이, 九龍瀑飛鳳瀑이잇는곳에 比하여이朴淵山城은나호면 나핫지決코보다낫게(低)評價할수는업스리라고斷言하고십소. 저九龍瀑은雄大豪宏할뿐도 飛鳳瀑은奇妙하만은 잇스나나리는물이적은데 오즉우리朴淵瀑布만이奇妙怪絕한同時에또한 물도적지안허 광광나려쏘나지는물은 싯퍼러둥둥안 깁흔물에나려거품을이르키고 千갈래萬갈래로 찌저구슬을 뿌리니 飛沫은저언덕 우에서잇는 泛斯亭에까지 뿜고잇서 衣服을 축축하게 만들어주고잇소 우레갓흔 물소래에 萬壑이震動하고 가차이잇는 사람의對話조차 듯기 어렵게만드오.

이물이바로 떠러지기前에는 큰石函과갓치된 속에바위가소사잇고 내려다보면 겁푸르게 보혀서 무시무시한늣김을주오 이곳이각금 自殺者의 天堂이되는北門압헤잇는못朴淵(上朴淵)이라는곳. 요. 예전에朴進士史佚이란 사람이 瀑上에서 吹笛할새 龍女感之하야 그를 엇어드려 男便을삼은지라이에因하여 朴淵이란 이름이생기엿다하오.

泛揵亭을거처서 瀑布에다다르면 우리가튼요란한 물소래에 暗然해질것이요. 目下한연못과 가튼소와 그한편에또한目下한 바위를보게되는것이니, 이것이 곳姑婦潭과 룡바위(龍巖)라는 것이요. 朴進士의어머니가 아들의빠저죽엇슴을알고, 悲痛하야 발이나낫이나 룡바위우에서 痛哭하다가 그만물속에빠저죽으니 곳이것이 이소를姑婦潭이라 일컷게된 所以요. 룡바위에 발을물에 적시면서 올나가니 몸시飛沫이 처밉니어오고 물귀운에 바람을 이르키어 풀지엿든 洋服을 다시 엽이게하는데 그위위에

『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

이라는 李太白의詩가 그야말로一筆揮之하여 올려서삭여저잇소. 이것이 또한저有名한 高麗의文豪名妓黃眞伊가 머리체를 느려제치고쓴것이란 記錄이남어잇스니, 엇지感慨無量치안홀것이요. 또그우에高飛詩人恰山이란사람의詩를삭엿스니

盧山眞面謫仙翩
白石遊人幾往來
欲識此間奇絕處
白時黃綠兩雄才

白은勿論李太白을말합이요 黃은黃眞伊를말합이요.

또傳說이잇스니 瀑上에神祠가잇서 旱災를만나면 비를비는곳인지라 한번高麗文宗이朴淵山城에 놀새 맛침 이島巖에 올는지라. 대번에風雨일거늘 李靈幹이란 사람이글을지어 淵에던지니 龍王이 그허리를나타내니 집행이로때려落鱗하니 물이赤色으로 變하며서 風雨가잣다하오.

이제 朴淵瀑布에關한詩는세賞히만호나 좋쉬울고 또한그韻致가 조흔것을 紹介한다면 앗가도 말한黃眞伊의漢詩를中嶽峽라는 篇에서 抄寫하여보겟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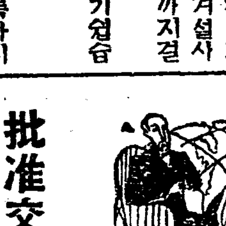
雷聲閃電紛[illegible]
珠春玉碎徹晴空
遊人莫道廬山勝
須育天磨冠海東
一孤長川噴紫[illegible]
[illegible]
飛泉倒瀉疑銀漢
怒瀑橫垂宛白虹

이詩속에 朴淵瀑布의 壯觀는 잘描出되엿다고 생각하오. 어색하기짝이업는 나의글에比하여 얼마나그요란스런瀑布의偉觀이잘나타나 잇는가를 再三誦讀하야 그맛을吟味하여보기를바라오.

L君!

비는또다시 쏘나지는구료. 압山뒷산은雲霧에끼여 희미한 사치만을 보혀주고잇소. 내가 묵고잇는房은바로 옷朴淵압헤 잇는旅館房, 그中에서도 가장 朴淵에갓차운 못동이방인고로 물소래가요란히들리오. 요란한 물소래 때문에 처음날밤은잠을잘이루지못하엿다오. 曉天에다가陰雨조생이라 달도업서 원누리(全世界)는瞭然이오. 편짝이든람푸불조차다꺼진後 房문을열고 나섯때 咫尺에서물소리만이 요란스럽게 울려오는구료. 포군한 자리에누어 讀書는三昧之境에빠젓슬때는 果然 갓득이나 업는사람氣는더욱잔속어파못처버리고 물소래外에는 오로지靜寂만이 차고잇슴뿐, 이런때나는두려움도아모것도 이저버리고 다만廣大한 自然과나라는 存在와의區別을할수업게되는것이오. 無我之境이란 이런것을뒤컷는것인지도 몰으겟소. 엇가말한朴進士의吹笛의 傳說도아마스스로가 물고잇든피리소래의 藝術境에스스로가 陶醉하야 그야말로 無我境에빠저서 그만日己의生命을 沒却해버렷슴인지도알수업는 일이요.

對米關係五十年史
美公使來駐와初期外交 (40)
湖岩



批准交換과陛見

『프드』公使가神戶에서 美艦모노케시』號(辛未洋擾때에 參加하엿든 美艦五隻中의하나)를 타고 仁川에 來着한것은 一九八三年五月七日(高宗廿年癸未四月初一日)아침八時엿다 一行으로말하면 公使夫妻를 비롯하야 『秘書스커더 Scudder』와 艦長과士官若干名과 및 本人通譯官齋藤修一郞과 尹致昊氏도 勿論그中의 一人이엇스며 仁川에서 떠나京城으로 올새 『프드』公使는 四輪轎로 그餘諸人도 或은步轎와 或은馬를 라고 隨行하엿다 京城에 到達한後 五月十九日(舊四月十三日)午後四時에 『프드』公使가外衙門에 나가

「一條一」約의 批准交換을 行하엿는데 그當時外衙門督辦閔泳穆以下 協辦들이 가보다 會同에서 公使一行으로 더부러 兩方代表가 捺印署名하야式을 마치엿다 外衙門에서 批准交換이 잇슨그翌日은 日曜日이엇 不拘하고 高宗께陛見하고 國書를 奉呈하엿다 이날아친十時頃에 外衙門에서 車馬를 公使館所인貞洞穆麟德邸(現中東學校와 師範附屬普通學校一圓)로보내여 公使를 마저다가 昌德宮(重熙堂?)으로 드려갓다 公使는 燕尾服으로 上監압헤 나가 脫帽하고 아주恭謹, 最大敬禮를 하매 起立하신上監께서 적이點頭하셧스며 公使가 國書를 奉呈하자

「一上一」監께서 손소接受하사 御座에侍立하야잇든 金玉均氏에게 交付하시니 金氏는 곳 그譯本을 朗讀하엿다 그러고나서는 上監께서 公使에게 向하야먼저 大統領의安否를 물으시고 그다음에 公使의遠路에 잘왓는가하고 물으섯다 이리하야朝鮮歷史에 처음보는 美國使節의 公式謁見이 아주簡單하게式을 終了하엿다 이로부터 太平洋을 隔해잇는韓美兩國이 그代表者를 通하야 날로 親密을 더하게되어거니와 十二年前 江華灣上의 우악스러운 衝突을 도리켜생각하면 和氣靄靄한속에서 오늘主玉帛으로도 相交하는것이얻쯤되 意義잇슴을 깨닷겟다 그리고『프드』公使의 夫人은

「一仁一」川에 떠러저잇다가 얼마後에 京城으로와서 公使와 同居하엿스며 公使의宿所도 貞洞穆麟德邸로부터 貞洞閔判書家(現美國總領事館)로옴겻는바陽七月七日에 이르러 閔中殿께서 비로소 千河두尙宮를 貞洞公使館에 보내여 公使夫人을 慰問하셧스며 그後에도 中殿께서 또다시內人을 보내여 公使夫人에게 太極扇과 花紋席가튼 선물을 下賜하셧다 朝鮮禮俗이 嚴絕하야 그리햇는지 또는 무슨事故로그리햇는지 最初公使夫人이 京城에온지 달포가 넘도록 宮中으로부터何等의 消息이 업슴으로 夫人이 노여워서 대처 이럴줄은 몰랏다고 自炊하는이 말한일이 잇섯다 하거니와 그後에

「一閔一」中殿께 公使夫人에게對하야 慰問을 하시며 物을주시면서도 오즉陛見一事에 이르러는 아모말씀이업섯다 그리다가 十月廿日(舊九月廿日)에가서야 비로소 陛見을 許하게되엇는데 이는『프드』公使의上監께 陛見이잇슨 去五月廿日로부터計算하야 꼭滿五個月이된다 이날에 한五十각가이되 公使夫人이 通譯인尹致昊氏를帶同하고 昌德宮어느內殿에서陛見을할새 公使夫人이 中殿의압헤 나가 한무릅을 꿀고서 最大敬禮를 行하매 閔中殿께서 起立하신채로 조금머리를 그덕여섯다 그리한後通譯을 거처公使夫人에게 몃마되下問이계시고 그것이 끗나자茶菓의 饗應이 잇섯다이는 실로

「一近一」代外國의 高貴한 女性이 朝鮮王宮에 발자취를드리노흔 最初이다

朝鮮文壇의精銳인
靑年作家十五人創作陣
短篇小說連載

사람은 사람에대한—즉인생에대한 흥미를가지고잇기때문에 문학(文學)이 잇게됨이라한과 가치 우리는 우리들에대한안목이 열리기때문에 신문학운동이이러나 이십년의 짜른세월에 조선문단의 장족적발전을보게되엿다

그러나 육체적물인과 정신적물안이 입큰로하여곰 최후의일선에 첫죽질하는이때에 조선이가 질곤한은 어떠한것일가 과거에잇서서 성숙치못한 우리문학우헤 가혹한편당이잇섯슴도큰원인이려니와 리롭지못한 환경에서 비저지는 문학은필경진체와 정돈(停頓)에서 그리고비경에서배회하게되여 우리문단이—과거의 잘못을 청산한다는것보다도 외우내환의 진통긔(陣痛期)에서 과감한 결단—용략이업스면 조선문단의 이치명적재난 혹은자멸적운명을 물리칠수가업슬것이다 이제 우리는 탁월한 문학리론 보다도 압서서 우리들의 이러한시대에잇서서의 새로운 창조적문학행동이 잇지안으면 안된다 이러한의미에서 우리조선일보사에서는 우리문단에 대한봉사적 의도로써 우리문단청년작가(青年作家) 제씨의 창작단편소설(短篇小說)을 련재(連載)하게되엿다 신문소설로써 보담도 작가들의 독특한 수법과, 인생관, 사회관등을 비추워 노도견량에 부닷기는 우리들 생활의 생명선이나 다름업는 키가될수잇슴으로 심혈을경주한그러작 걸작들을필목상대할날이 멀지안엇다—민촌리긔영(民村李箕永)씨의 장편소설 고향(故鄕)은 조선농민들을 대성통곡케하고 노호하게한감격편이엿거니와 이소설이 몃칠만잇스면 끗나겟슴으로 이여서 제씨의 단편소설을 련재하게되엿고 상세는 추후에 발표하기로한다

執筆者

朴英熙、張赫宙、李箕永、李無影、趙碧岩、
李相和、李石薰、朴泰遠、朴花城、宋影、
嚴興燮、安懷南、李孝石、金起林、蔡萬植、
=(無順)=

—九月初旬부터學藝面에連載—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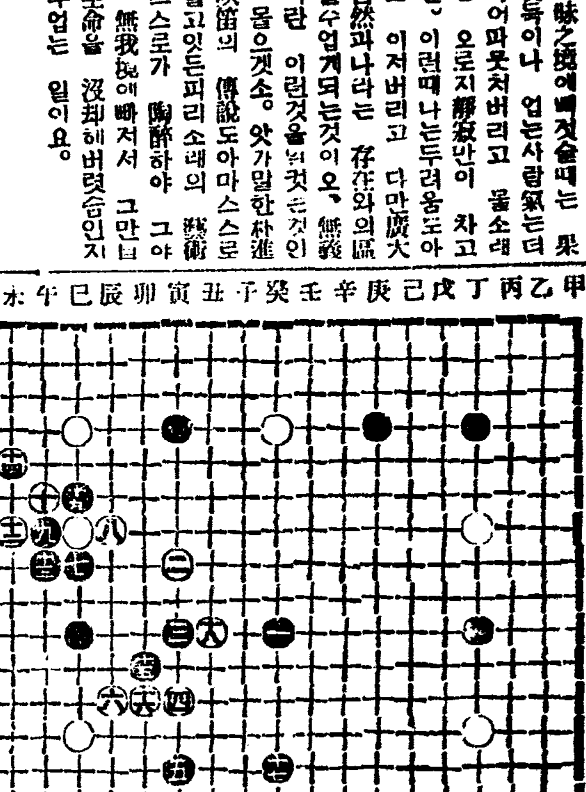
漢詩
碧梧山人 考選

三角山
二等之三　東萊 瀛園散人

金精玉氣鎭王京
三角崢嶸類削成
排戟森嚴寒日照
列屛蒼翠瑞雲晴
遙臨北極撑天重
近對南山壓地平
應有岳靈長在此
千秋護我萬民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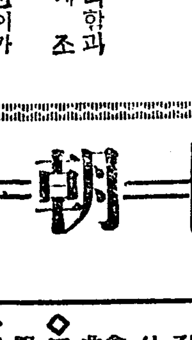
評曰 全篇緻密可見其老鍊之手筆

◇本社主催◇
選手權圍碁對局譜 {二}
略符=〈□百△·二百·◎三百〉
白 丁壹春
黑先 柳鎭河



(●一)未의六 (○二)未의七 (●三)午의八 (○四)未의五 (●五)卯의十一 (○六)卯의十三 (●七)癸의十四 (○八)丑의十 (●九)巳의六 (○十)申의六 ◇死點 (●二)未의六

◇察滿文氏評曰 =黑이 未의六으로 除又除하야 一點을 犧牲함은 別奇事가아니지만 白의堅固할 機能이 생긴것이요 또 黑이 卯의十一로 窺視하고 癸의十四로 移着함은 巳의十 將碩活路를自信하고 他勢를 引繼할優算이다 白이丑의十으로 扼項됨을 試用함에對하야 黑이巳의六 白後稜에 질너 自身圖生準備에 紛忙하나 下回如何를 靜觀할지어다 ◇前回盧史楚丁奎春兩氏對戰結果는白四目勝으로訂正



九月一日(土曜)

◇午後六時 하-모니카獨奏 李和音
◇同六時二五分 讀書를마지하며(三) 延專敎授 鄭寅燮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學期에際하야 同德女高普校長 趙東植
◇同八時 俗謠 李眞紅
◇同八時二五分 短篇 高戴德 不孤 野談 尹白南
◇同九時 [illegible] 李[illegible]協

九月二日(日曜)

◇同六時 童謠 一、齊唱반작이는별 二、獨唱歸帆(盧孝順) 三、齊唱대장깐 四、獨唱고요한강까(李鍾仁) 五、齊唱우리집식구 六、齊唱에헤야배젓자 七、獨唱여우가시집간다네(盧孝順) 八、獨唱사공아버지(李鍾仁) 金剛會員 指揮及伴奏 史相奎 作曲組一葉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心學入門 中樞院囑託 鄭光朝
◇同七時三〇分 音律 靈山會像 玄琴 趙韓淳 洋琴 金相淳 笑 閔完植 大琴 金永根 細笛 高載德
◇同八時 映畫이야기 李惠興 音樂伴奏
◇同八時三〇分 俗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執杖歌 三、뜻고초 四、寧邊歌 崔蓮香 金奉蓮
◇同九時 소프라노獨唱 一、아름다운밤…오펜빡크作曲 二、자장가…브람스作曲 三、小夜歌…슈벨트作曲 四、門을열어다고…브람스作曲 五、望鄕歌…프스타作曲 宋明信

九月三日(日曜)

◇午前一〇時 野球試合實況
◇午後六時 全朝鮮野球爭霸戰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六時 아코데온獨奏와하와이기타-獨奏 一、愉快한牛乳장사(아코데온)…사로이作曲 二、오동꼿(하와이안기타-)…全壽麟作曲 三、너와둘이서(아코데온)…하그리쁘、마드랄作曲 四、갈때꼿(하와이안기타-)…全壽麟作曲 五、비(雨)속에서노래함…브르엔作曲 六、아리나(아코데온)…全壽麟作曲 全壽麟
◇同七時三〇分 趣味講話 우슴의哲學(一) 李晶燮
◇同八時 俗謠 一、秋風感別曲 二、배다래기 三、寧邊歌 白牧丹 柳開東
◇同八時二〇分(東京) 피아노獨奏 澤田光子
◇同八時四〇分(大阪) 빠이올린獨奏 奏鳴曲C短調作品四五…그리-그作曲 第一章 알레그로 모르토에앗파시오나-토 第二章 알레그레토 에쓰프렛씨브오 아라로만자 第三章 알레그로아니마-트 에프젠 들레인 피아노伴奏 荒木和子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大丈夫 二、唱劇調 三顧草廬 金昌龍 鼓手 韓成俊

三南水害義捐金品

現金累計 二萬六千八百八圓六十八錢

物品累計 六萬八千二百五十七點

朝鮮佛敎所

大阪市東淀川區山口町一三九

一金二十八圓十三錢 (送料除外)

內譯 五圓 大阪佛敎所金琦石 五圓 念佛會員一同 一圓五十錢 啓發理髮館 一圓 金景振藥房 一圓 金莫同 一圓 裵鎭九 一圓 孫鳳吉 一圓 吳廣順 一圓 金基淑 一圓 李春光 五十錢 李謙吉 五十錢 全山月 五十錢 閔明俊 五十錢 趙鳳九 五十錢 賓元東 五十錢 朴明述 五十錢 趙圭夏 五十錢 沈贊燮

五十錢 朴孟鍾 五十錢 金鉉泰 五十錢 李致三 五十錢 裵元祚 五十錢 權泰久 三十錢 金基龍 三十錢 李畢峰 三十錢 長澤勤治郎 三十錢 朴判昰 三十錢 黃俊伊 二十錢 崔京伯 二十錢 高他寬 二十錢 金七屋 二十錢 林在洪 二十錢 金相範 二十錢 韓明敎 二十錢 鄭忠玉 二十錢 河龍植 二十錢 申景洛 十錢 崔宗海 十錢 韓奉德

宋昌會外五十三人分

全北沃溝郡大野面光橋里

一金七圓七十錢

內譯 五十錢 吳文五 五十錢 吳壽益 五十錢 具齊昇 五十錢 宋昌會 三十錢 趙洪植 二十錢 杜公先 二十錢 趙德仲 二十錢 李弼允 二十錢 金鈴鐸 十五錢 趙用先 十錢 吳道基 十錢 徐京贊 十錢 鄭基南 二十錢 杜判釗 十錢 朴成根 十錢 崔秉淳 十錢 吳完春 十錢 吳壽桓 十錢 林相執 十錢 吳千春 十錢 金奉春 十錢 崔學千 五錢 梁在貴 五錢 鄭相燮 五錢 俞京烈 二錢 金鳳燮

二錢 朴奎寬 十六錢 崔泰守 十四錢 趙京執 十錢 梁在變 十錢 梁用文 十錢 梁在弘 十錢 全京植 十錢 崔泰述 十錢 吳相用 十四錢 宋萬先 十錢 金京泰 十錢 文應變 十錢 韓宗烈 六錢 崔致弘 六錢 崔慶煥 六錢 梁勝貴 八錢 朴奎寬 四錢 羅治德 四錢 李貴童 六錢 文吉成 二錢 鄭基南 十錢 李印根 二十錢 申準秀 二十錢 金東熙 十錢 高用變 五十錢 徐廷剋 二十錢 金東根

楊花津振興會

高陽郡延禧面合井里

一金六圓二十錢

內譯 一圓 趙東元 五十錢 趙奉植 五十錢 趙應德 三十錢 李萬石 二十錢 崔錫允 二十錢 李貴成 二十錢 崔益順 二十錢 辛正植 二十錢 李長吉 十五錢 林泰榮 十五錢 金和春 十錢 洪俊明 二十錢 趙哲龍 十錢 尹乙福

十錢 白千鶴 十錢 崔壽卿 十錢 金福朮 十錢 洪茂成 十錢 朴泰星 十錢 白鳳龍 十錢 白仲根 十錢 李允根 十錢 朴基俊 十錢 金先根 十錢 李德煥 十錢 李順萬 十錢 朴日童 十錢 崔奉安 十錢 崔益煥

十錢 金昌熙 十錢 尹景祐 十錢 金先興 十錢 金銀培

十錢 李千萬 十錢 申景雲 十錢 趙致萬

湖東面有志一同

黃海道延白郡

一金八圓九十二錢

內譯 (延白郡湖東面留停里) 五十錢 李光淳 四十錢 鄭浩益 三十錢 魯初才 三十錢 李鳳淳 二十錢 金東根 二十錢 朱宅洙 二十錢 李春成 十五錢 鄭鳳學 十二錢 鄭文弼 十錢 鄭周鉉 十錢 鄭鳳熙 十錢 鄭明鳳 二十錢 鄭相默 十錢 鄭德天 十錢 朱光範 十錢 吳東順 十錢 玄龍鳳 十錢 張德喆 十錢 金昌浩 十錢 朴順奉 十錢 李鍾弼 十錢 李秀玉 十錢 朴貞淑 十錢 申順永 十錢 朴正錫 十八錢 李石祥 十錢 趙寬俊 十錢 崔良學 十錢 楊聖根 十錢 朴聖大 十錢 鄭相淵 五錢 鄭五長

五錢 朴士明 五錢 朴龍福 五錢 李昌成 五錢 洪德杓 (延白郡湖東面麗津浦白雲洞) 六十錢 進德書堂學生一同 十錢 少年俱樂部 二十錢 權聖瑞 二十錢 李成采 二十錢 黃聖吉 十錢 權点福 十錢 趙龍三 十錢 金昌云 十錢 金鍾赫 十錢 朴順錫 十錢 朴德根 十錢 金昌連 十錢 金少元 十錢 金斗京 十錢 宋鉉燮 十五錢 黃寅昌 十錢 金鍾杓 十錢 金熙泰 (延白郡羅津浦里) 三十一錢 朴容南 二十錢 趙大成 二十錢 金龍成 十錢 金鳳成 二十錢 吳明東 二十錢 趙昌奉 十五錢 趙富安 十四錢 梁長奉

本社廣豐分局經由分(第二回)

一金二十六圓四十二錢 內送料三十三錢除

內譯 六圓二十錢 廣亭靑年素人劇團員一同 一圓五十錢 安應善 一圓 李滋弘 一圓 申禹鉉 一圓 李壽命 一圓 申昌熙理髮館 一圓 白燕淳 一圓 南宮棕 一圓 孟泳鎬商店 一圓 鹽津敬一 一圓 申聖奉 一圓 金忠熙 一圓 吳惠泳

一圓 崔秉洪商店 一圓 張爽煥 一圓 金學龍 五十錢 金璟熙 五十錢 張基漢 五十錢 鄭憲璟 五十錢 李喆雨 五十錢 朴魯俊商店 五十錢 金占用商店 四十錢 金正浩 三十錢 金鳳錫 三十錢 張仁燮 三十錢 洪淳玉 三十錢 張基洪 二十錢 裵富貴 二十錢 尹貞燮 五錢 金奇男

本社鎭南浦支局經由分

(衣類及送金料除外)

一金十七圓五十一錢 衣類二百三十六點

內譯 二圓三十錢 新興里監理敎會 讚揚隊員一同 一圓八十錢 (鎭南浦億兩機里) 監理敎會一同 一圓 (鎭南浦新興里監理敎會) 金鍾弼

一圓 鄭信德 一圓三十錢 金就勳 一圓 李承河 六十錢 白南哲 五十錢 安謙德 四十錢 邊時幹 二十錢 崔順學 四十錢 邊京煥

二十錢 四十錢 二十錢 三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五錢 五錢 十錢 五錢 十錢 五錢 十錢 四十錢 四十五點 二十錢 二十三點 二十錢五點 二十錢十二點 二十錢四點 十點 四點 八點 二十錢四點 八點 四點 八點 四點 十錢六點 四點 十錢六點 十錢四點 六點 四點 二十錢五點 三點 十錢五點 三點 五點 三點 二十錢三點 二點 三點 十錢二點 二十錢二點 二點 二點 二點 二十錢三點 十錢一點 十錢二點 一點 二點

韓希勳 尹基濟 崔光順 表箕範 張仁善 宋昌德 林得麟 崔鳳振 金鶴李 崔鳳仙 裵尙益 金思德 崔鳳仁 宋濟用 李肯道 金利京 任載弘 李龍瑞 金善周 李斗春 金尙愚 趙周夏 金用基 任錫河 金用銑 尹利七 洪昌浩 徐弘善 朴順東 尹基三 韓明希 洪範德 金京勳 金元姬 邊昌淳 林永信 尹基昌 吳尙一 宋泰化 林鳳順 金保國 金琪 金京煥 崔梅智 李基弼 全順信 金節崧 金昌淑 李善一 金能俊 李賢淑 金炳華 方允華 金聖元 吳根信 秦連峯 權化淑 趙永福 金昌道 金重仁 朴聖奉 金貞烈 韓光哲 玄昇玉 車敬心 金馬利亞 孫泰化 白恩石 韓仁洙 宋昌德 咸成燮 張學俊 羅善玉 金昌仁 朴德元 李景在 韓貞勳 姜貞淡 李奎憲 邊花國

一點 二點 一點 二點 一點 二點

張仁善 李延安 朴敬三 金眞實 金德信 李恩根

五錢一點 十錢二點 一點 五錢二點 一點 五錢一點

郭應三 金德煥 鄭鎭淑 李信一 金奉恩 尹德興

本社院里分局經由分

一金九圓二十錢

內譯 (价川北院監理敎會)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二十錢 二十錢

婦人節制會 엡웟靑年會 吳貞模 金丙三 李文學 李東根 梁俊澤 林丙國 咸哲薰 趙長明 崔逸善 韓斌燮 韓性素

二十錢 李基德 二十錢 元英淑 十錢 李東弼 十錢 金鎭軒 十錢 李元定 十錢 李鍾彥 十錢 金正植 十錢 金容媛 十錢 李丙浩 十錢 高夫姒 十錢 金良子 五錢 金守富 五錢 沈丙玉 十錢 金承眞

本報江華支局經由分(五回)

一金十七圓四十一錢 衣類一百七十一點

內譯 七圓四十五錢 江華南區聖公會敎人一同 九十六錢 江華南區聖公會主日學校生徒一同 四圓 江華官廳里歲餜稧一同 二圓 琴世基

(新村振興會員一同)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五錢 五錢

羅福成 崔洙慶 朴宗奎 羅福玄 安榮燁 崔溶伊 金順元 羅福順 崔洙熙 羅汝鍾 崔熒寅 白昌基 桂拍順 崔洙奉 徐鳳漢 崔福成

九點 六點 四點 四點 四點 三點 八點 七點 三點 三點 三點 三點 二點 三點 二點 二點 四點 四點 三點 二點 二點 二點 一點 一點 一點 二點

金에시다 金愛順 金안질나 金사라 金에다 金막달나 金마릴다 趙마르다 高마리아 高버늬시 崔로다 姜살노미 姜힐다 高뉴네시 金에드레 朴엣나 趙누시 林종학 李한나 崔아가타 咸은혜 李버늬시 朴義昌 柳모니가 片마리아 劉마다

(江華溫水里聖公會 聖母마리아會一同) 五十點 金모니가 十四點 金버늬시 十三點 金미리암 十點 宋드리사 十二點 劉유녜시 十一點 趙헝니나 九點 金머시

本社慶山支局經由分(第一回)

一金五十四圓九錢 衣類百五十七點 藥品三十點

內譯 七圓四十六錢 慈仁普校同窓會一同 五圓 仁山材木商會 一圓五十錢 鄭尤永商店 一圓 無名氏 一圓 無名氏 一圓 黃桂月 一圓 黃河慶 一圓 三中洋行 一圓 朴龍祚 五十錢 金昊鳳 五十錢 鄭聖道 五十錢 朴上用 二十錢 李春玉 十錢 黃基準 (以上慈仁音樂會時義捐金收入條) 二錢 徐정식

十錢 崔聖浩 三錢 李小根 二錢 李대순 五錢 김명자 五錢 安順子 十錢 한수은 十錢 한시영 十錢 徐福生 五錢 李석윤 二錢 김맛낭 二錢 김꼿난 十錢 尹義祚 五錢 權用先 五錢 李承雨 二錢 李창우 二點 趙昌根 神秘丹三十點 無名氏

(慈仁面民閣夫人會員一同) 一圓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二十錢 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五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二十錢 二點 二點 六點 二點 四點 五點 三點 一點 一點 五點 二點 一點 一點 三點 二點 二點 一點 一點 一點 一點 三點 一點 一點 一點 三點 一點 二點 一點 三點 二點 一點 三點 一點 一點 一點 五點 二點 三點 二點 二點 一點 五點 二點 一點 三點 五點 二點 一點 二點 二點 六點 一點 四點 二點 四點 二點 二點 二點

石容克母親 黃桂月母親 金昊鳳母親 石英子母親 朴命岩母親 姜成得母親 卞泰用母親 崔基八閣夫人 安龍海閣夫人 白仁善閣夫人 成任龍閣夫人 金且俊閣夫人 千金珠閣夫人 金在龍閣夫人 姜乭方閣夫人 李萬根閣夫人 金一龍閣夫人 李判岩閣夫人 李龍錫閣夫人 金大川閣夫人 李得金閣夫人 金仁守閣夫人 張春蘭 石容克母親 金敬守母親 黃桂月母親 石昌玉母親 李八萬母親 姜性浩母親 尹斗岩母親 鄭潤福母親 石容云母親 金相鳳母親 石英子母親 李泰祚母親 金太俊母親 裵東俊母親 文消水母親 崔實根母親 孫鳳祚母親 卞太守母親 卞俊伊母親 朴在得母親 朴學伊母親 朴斗岩母親 金承敎母親 石容洛母親 吳東祚母親 盧仁泰母親 石小岩母親 金永春母親 成萬伊母親 崔基八閣夫人 金順一閣夫人 成任龍閣夫人 朴龍振閣夫人 金泰岩閣夫人 安得守閣夫人 洪海性閣夫人 全福乭閣夫人 金學祚閣夫人 李今俊閣夫人 李泰英閣夫人 朴龍千閣夫人 兪達龍閣夫人 柳泰鉉閣夫人 李普乭閣夫人 李仁永閣夫人 朴龍祚閣夫人 卞斗榮閣夫人 全福述閣夫人 盧文碩閣夫人 姜永出閣夫人 金敬之閣夫人 黃後俊閣夫人 嚴翼海閣夫人 裵萬根閣夫人 崔鳳基閣夫人 李君伊閣夫人 朴坤伊閣夫人 金任述閣夫人

二點 一點 二點 一點 二點 三點 三點 二點 一點 二點 一點 二點

金用伊閣夫人 李萬根閣夫人 李末釗閣夫人 石容紀閣夫人 高應快閣夫人 全玉山人 白必淑 金泰順 李福連 李命連 李紅連 張春蘭

(慶山郡慈仁面西部洞農村振興組合員一同) 三圓 金秉河 一圓 吳永權 一圓 朴漢奎 二圓 姜文佑 一圓 朴士順 五十錢 金秀明 五十錢 李德今 五十錢 金在文 五十錢 李議根 五十錢 高應快 五十錢 高同達 五十錢 裵今生 五十錢 金泰岩 五十錢 文章煥 三十錢 仁和永 三十錢 李泰植 三十錢 李仁守 三十錢 尹丁學 三十錢 姜亭遠 三十錢 朴致祥 三十錢 金在用 三十錢 姜東述 三十錢 李用錫 三十錢 嚴翼海 三十錢 金且邦 二十錢 石文珣 二十錢 朴坤伊 二十錢 尹華敬 二十錢 盧學李 二十錢 卞泰用 二十錢 盧文植 二十錢 金容守 二十錢 全卜述 二十錢 鄭順執 二十錢 朴和淑 二十錢 李鍾浩 二十錢 金舜一 二十錢 金順三 二十錢 朴秉秀 二十錢 朴用千 二十錢 張在甲 二十錢 姜乭岩 二十錢 沈基周 二十錢 金甲守 二十錢 金謂慶 二十錢 姜聲出 二十錢 黃守坤 二十錢 辛長坤 二十錢 卞俊伊 二十錢 韓凡伊 二十錢 金學祚 二十錢 李萬根 二十錢 裵萬金 二十錢 崔基八 二十錢 金龍守 二十錢 安泰海 二十錢 李末釗 二十錢 尹甲鎭 二十錢 黃範性 二十錢 李今俊 二十錢 靑允淑 二十錢 徐命俊 二十錢 朴敬和 二十錢 成任龍 二十錢 卞二甲 二十錢 金秉勳 二十錢 裵鍾牙

二十錢 朴文五 二十錢 金興伊 二十錢 金壬述 二十錢 趙龍伊 十錢 石浩仁 十錢 金進玉 十錢 朴鳳述 十錢 吳今浩 十錢 千順石 十錢 李泰英

十錢 兪建用 十錢 金仁慶 十錢 崔德和 十錢 鄭乙龍 十錢 鄭斗容 十錢 梁在川 十錢 朴且述 十錢 朴億述 十錢 李聖淑 十錢 張德元

本社金堤支局經由分

(十四日附本報農民名義로總額은已爲發表코內譯만今日發表함) (但小麥은金額으로換算함)

內譯 一圓三錢 金永珠 十錢 金永會 五十錢 金得善 五錢 朱仁植 三十五錢 金官玉 十五錢 金善長 二十錢 文益中 三十錢 鄭經鎔 二十錢 金治官 十錢 金元信 十五錢 鄭成集 十五錢 高相峯 十錢 全鳳珠 二十五錢 李錫基 二十錢 金用石 一斗 安錫雨 五升 文富鉉 五升 朴必雄 三升五合 郭仲根 一升五合 趙宗彔 三升五合 元奎先 五升 金明烈 三升 張光化 一升 安成玉 二升 崔俊益 二升 吳熙鍾

一升五合 金贊淑 一升 金福述 一升五合 金太善 二升 林化成 二升 李福男 一升 金聖奎 一升五合 高君日 一升五合 李文淑 一升 鄭鎭南 二升 高順同 一升五合 高才煥 二升五合 郭右植 一升 吳炳述 二升五合 吳炳都 二升 金成九 一升 安得春 二升五合 朴奉炘 二升 占吉星 二合 朴熙三 二升 鄭順日 一升五合 朴南起 一升五合 林成眞 二升 李永根 一升 嚴南用 一升 金宗燮 一升 金俊男 一升五合 金同桓 (一升五合) 鄭基煥

本社瑞興支局經由分

(總額은已爲發表코今日內譯만發表)

內譯 (瑞興郡禾回面周橋里 大德書堂生徒一同) 五錢 郭愛順 五錢 柳順烈 五錢 趙貴燁 五錢 文善妣 五錢 辛相鎬 五錢 梁鵬錫 五錢 金成實 五錢 金昌洙 五錢 郭南龍 五錢 玄福鎭 五錢 金錫根 五錢 邊熙鳳 五錢 金貞女 五錢 崔敬植 五錢 柳元培 五錢 韓相石 五錢 李大圭 五錢 林善澤 五錢 龐義燮 五錢 朴鍾瑞 五錢 金錫鉉 五錢 李龍夏 五錢 石昌根 五錢 吳承律 五錢 金善順 五錢 張載善 五錢 元世貞 五錢 金銀植

五錢 五錢 五錢 五錢 五錢 四錢 三錢 三錢 三錢 三錢 三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二錢

崔炳熙 孔善分 梁東煥 崔德善 趙熙元 金龍愛 趙鍾玉 吳永淳 金應鎌 金元玉 李在福 郭泰淳 趙東烈 俞慈兼 郭元吉 權光洙 洪興淳 金光洙 石桂俊 李龍漢 金應賓 趙鳳女 趙東君 張枝燁 林成宰 李致鉉 李熙元 安龍建 金鎭河 朴在善

朝鮮社會事業協會取扱分

(八月三十一日正午까지)

現金小計 一百七十五圓五十八錢

物品小計 五百六十四點

日計 九一二圓六九錢

累計 一二八、八二〇圓五九錢

故鄕 (237)

李箕永 作　安夕影 畵

희생(犧牲) 五

산에의 괴로워함을 려며히 눈치첸 옥희는 그대로 잇슬수가 업섯다。 그는 정사(情死)의심리(心理)를 이순간에맛보앗다。 그는 몸부림을 치고 통곡을해도 시연치 안흘것갓다。 무러뜻고、 할퀴고 그를 통채로 집어먹고 십다。…… 아、 그가 그전처럼、 무의식한 여자라면、 그는 전생에 무슨 업원으로 서로만나서、 이러케도 상사의정을 태우게하느냐고 산에를저주하엿슬것이다。

옥희는 별안간 희준의무릅압호로 씨러지며、 머리를처바엇다。 그리고 억개를달삭어리며 흐늑흐늑 늣기엿다 산에는 이광경을보고、 엇절줄을몰넛다。 그는 두팔을 벌녀서옥희를 안으랴다가、 뭉칫하고、 손을 옥으렷다。

그의눈은 마치저것바라!』 하는듯이、 경호의 뒤통수를노리엿다。 ――

동무와의사랑과 정욕의투쟁! 만일누가、 이때의광경을、 목도한다면、 그는 희준이의 무섭게 담으린입모습―그입으로 모든 고통을 가려마시고 잇는 의지력……위로 찬동한 고민을띄고 잇는것을 발견하엿슬것이다。

『선생님……저를용서하여 주서요……선생님을버린 저를 용서하여 주서요……』

옥희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가늘게떨며 부르짓는다。 그는 목매처우럿다。 모든 서름이일시에 우름으로 내솟치는 것처럼――。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사……사랑 하엿서요――그! 그러나……』

울음에목맷친 목소리는、목안에서、나오지안는것처럼、옥희는 늑겨운다。 희준이는 엇잘줄을 몰럿다。

『동무왜 이라서요! 그런맙슴은、 인제、 고…고만 둡시다。』

『네……그건인제 씁데업는 말인줄은 저도、 잘……압니요……그러치만……아……』

『동무、 고만 이러나서요。 악가 내가한말을 이지섯습닛가?』

희준이도 목소리가 떨니엿다。 입술이 실눅실눅해젓다。

『선생님……오날선생님을 만나보라한것은、실상인즉 선생님께、사죄하랴으로……그랫서요……용서해 주서요……。』

『무엇을 사죄하시나요?』

희준이는 강잉히 우서보엿다。

『경호씨와……다시 만……만나게된것을……』

『아、그건 잘하섯습니다。―참、경호씨와、약혼하섯다는 말을、어제 들엇지요。』

하고、희준이는 한손을 옥희의 등에 언젓다。 몽실몽실한 살결의 촉감이、전긔(電氣)처럼、찌르르하니、자긔몸에 늑겨진다。 그것은 즐룸처럼 등허리의 한복판을 쩌개고 지나간다。 희준이는 현긔증이난다?……

『잘햇서요?…… 정말노 그러케아섯나요?』

옥희는 가만이 고개를처들며、마치 질문을 하는것처럼 당으지게 뭇는다。 그는 무에라고 대답해야 할는지 몰낫다。

『그럼、정말이지요! 동무는경호씨와 결혼을 하시는것이 가장합당하겟지요。』

『아!……』

옥희는 다시 머리를숙이엿다。 그는 한동안 진정하엿든 서름이 새로 복바처 올넛다

『선생님……제가 경호군과다시 언약하기전에 한마듸도 엿주어보지못한 저의심정을 용서해주서요……그러나、저도 결혼만위해서…… 그리케한것은 안이에요…… 결혼그것보다도! …경호씨를 동무로 엇고십허서요……만일 그라지 안으면――그는 타락 할는지도 모르기때문에……』

하고、옥희는 바스스이러나안지며、수건으로눈물을 씻는다 눈갓이 새빨가케부푸른 눈매는、더한칭 육감을 자극한다

『그런슴암니다。… 터구나 경호씨와는、그전부터 사랑한터이아입닛가?』

희준이도 손늣때고、진숭한 태도로 마주앗젓다。

『그런것은、안이여요、그보다도……』

옥희는 다시고개를 숙이고 코메인소리를 한다。 희준이는 지금하는말의 의미를 그의눈에서 읽어보고、자긔도모르게 한숨을 내쉬엿다。

衛生口錠

口中殺菌劑

입으로드는病을막고 精神을爽快히하는

カ가 オ오 ー ル루

簡單코자미나고만히타는

當籤賞品 拾余萬点의 大懸賞募集

壹等 參拾名
- 本銘仙夜具 一組式
- 總桐三重簞笥 一棹式
- 高級ナナオララヂオセット 一台式
- 最新型ベビーパール寫眞機 一個式
- 高級双眼鏡 一個式

貳等 五拾名
- 本銘仙座蒲團五枚組 一組式
- 銀象嵌宣德銅火鉢 一對式
- 本革旅行鞄 一個式
- 大形手提金庫 一個式
- クローム側腕卷時計 一個式

參等 五百名
- オリヂナル化粧料詰合函 一個式

四等 壹千名
- 原料香水 オリヂナル中瓶 一個式

五等 壹萬名
- 衛生口錠 カオール 一包式

六等 拾萬名
- オリヂナル香水紙 一枚式

壹等貳等은上記內希望品一點을選定하시압

急告!!
全國藥店各位에願함

今回本紙上發表와가튼大懸賞募集을計劃하고販賣店各位의協力을어더넓이全國愛用家로부터答案을募集하야아울너各位의盡力에酬應코자微誠의미테本懸賞募集에關한材料를發送하얏습니다。아직入手못하신商店은至急히申込하십시오。

カオール의配劑와其効用
製劑顧問ドクトル松尾道

一、口中殺菌劑를配合함
따라서空氣又는飮食物과함께口腔으로侵入하는諸種의病原菌을口中에서完全히殺菌함으로各種傳染病을豫防함

二、健胃整腸劑를配合함
따라서胃를健全히하고도其消化力을亢進하야食慾을增進케하며泄瀉、腸가다루等에整腸劑는殺菌劑와協力하야그것을治療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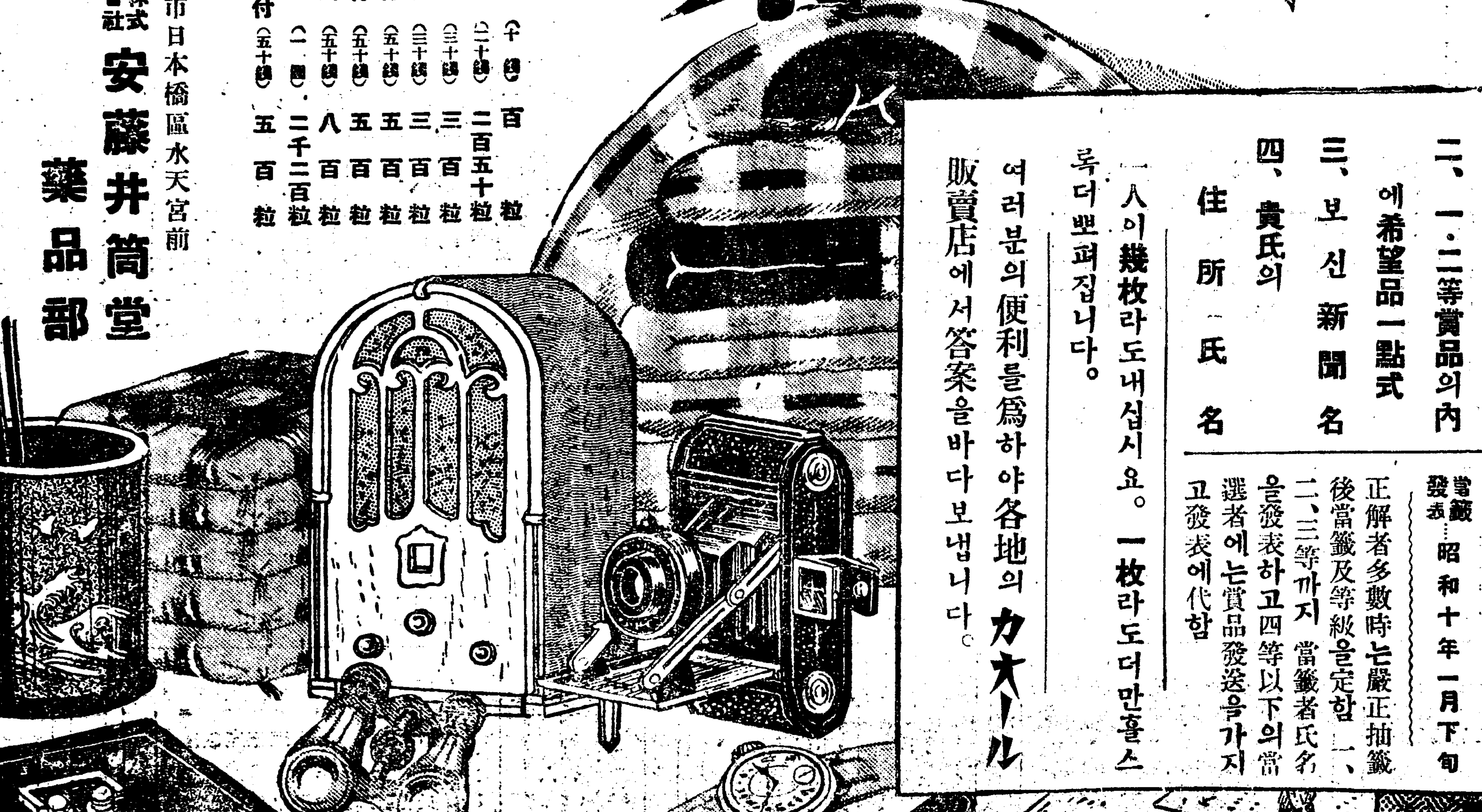
三、興奮劑及强壯劑를配合함
따라서心身의疲勞가衰時에는各機能을興奮케하야氣力을回復旺盛케하며、健胃劑、함께肉體의强壯을꾀함

四、凉及淸美劑音劑를配合함
따라서其特有의芳香으로써口中의惡臭惡熱을除去하고痰咳劑는咽喉의乾燥를潤澤하야音聲을美化하며精神을爽快케함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ポケット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丁字形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光輝金石茶製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安藤井筒堂藥品部



懸賞課題

입으로드는病을막고 精神을爽快히하는 有名한 衛生口錠 ○○○○ 懷中護身藥의일음은뭣?

答案用紙와 그쓰는法

カオール의効能書(袋入은그上包의効能書 函入은函中의効能書)의餘白에又는다른用紙에左의順序로明記하시압

一、答○○○○
二、一・二等賞品의內에希望品一點式
三、보신新聞名
四、貴氏의住所氏名

答案보내는法

答案은다ー楷書로明瞭히써서封書로하야十五瓦(四匁)마다三錢切手를貼付左記에送付하시압 郵稅不足、未納은受付치안흠

答案보내는곳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安藤井筒堂藥品部 懸賞係

期限…昭和九年十二月末日
當籤發表…昭和十年一月下旬

正解者多數時는嚴正抽籤後當籤及等級을定함 一、二、三等까지當籤者氏名을發表하고四等以下의當選者에는賞品發送을가지고發表에代함

一人이幾枚라도내십시요。一枚라도더만흘스룩더뽀펴집니다。

여러분의便利를爲하야各地의カオール販賣店에서答案을바다보냅니다。

株主總意를無視하고 東銀閔頭取再辭任

理財課와朝鮮銀行에表明 總會後一朔之餘에

東一銀行頭取閔大植氏의 辭任問題로 一時는相當히紛糾가되어오다가 지난七月二十五日 同銀行株主定期總會에서 株主總意로 閔頭取辭任에依한定款一部改正의議案이 撤回케되고 말너서 閔頭取가辭意를버리고 株主의 熱誠대로繼續하야 頭取의職을 保持하야 예안질것을 總會席上에서言明하엿스며 또는그것을即時朝鮮銀行과 總督府理財課에報告하야 東銀은 表面上大風過의 落着을보게되엇든것은 旣報한바이다 그런데 總會가 이는시겨우 一朔有日의 最近에 다시 閔頭取는 辭意를表明하고 이것을 總督府理財課와 朝鮮銀行當局者에게 口頭로써 表示하엿다고한다 그래서 지난總會의 株主總意를無視한 東銀閔頭取의 辭任을中心으로한 問題는 再燃되어잇는터이다

眞意가那邊? 落着如何注目處

銀行頭取의재리에 一生을 바칠맘이다 그러나 오늘에 안저잇서야만 된다는것은無理의말이다 그러나 오늘에 잇서 東銀은 整理途中에잇는만큼 所謂非常時로 볼수잇스며 더구나 東銀에對하야 閔氏家庭關係와가티생각하는것은 自他가 認定하는터임을不拘하고 다다閑慾의生活을 하겟다는 曖昧至極한 一身上의理由로 株主總會後

理解할수가업다 最後境遇는干涉

▲西崎理財課長談

過般株主總會에서 頭取辭任을 撤回키로되엇는데 또辭任을말함은 참으로理解키어려웁다 當局으로서는 될수잇는대로 傍觀을하고잇지만 만약에 銀行業績에 影響이 맛칠念慮가 잇는境遇에는할수업시 干涉치안흘수 업게되다 어떠튼지 重役間紛爭하는곳에 輕率히干涉하면 그波紋을大케할 念慮가잇서서 매우警戒를하는바이다

一朔餘에 다시辭任하라고함은 그眞意가어듸잇는지疑心을 안가질수업고 말아서排聞는 여러가지의말이 떠돌아단기게되다 어떠튼지閔頭取의再辭任은 당연어려케落着될는지 注目을 끄은다

固執에는奈何

市川東銀常務談

閔頭取가 銀行에 안나오고 身病으로 辭務하고잇는터이

그辭任은 年中行事

色部朝銀理事談

다 그辭任에對하야 銀行으로서 아즉重役會를 열지안헛다 그런데閔大植氏가 어되까지 辭意를固持하면 할수업는일이나 銀行이整理中에잇는만큼 아모리 不得已한理由가잇드래도 참고잇스면 조흘줄로생각한다

東一銀行閔頭取가또辭任을云云하얏다면 그는年中行事로 하자는수작인것갓다 失禮의 말이지만朝鮮人의心理狀態는 나도서는理解할수업다 朝鮮當局으로서의斡旋한松原理事가 東京에가서不在中임으로 나도서는말할수업스나 東一銀行關係者들은閔氏의態度가如斯히不定한以上 적지안은不安을가지고잇슬것이니 딱한일이다

九月鰮油落札 一圓八十一錢

九月分鰮油는 一月八十一錢(前月보다二十錢高)으로 朝鮮油脂會社에落札되엇다

市場(一日)

米(單位錢)

	前日比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㊂三等米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精白米一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改良 一斤價 在來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二圓○錢	十二圓○錢
銀	十九錢五厘	十六錢五厘

株(單位錢)

	前日比	
朝取	[illegible]	不變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大阪鐵	[illegible]	
大阪棉化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古河銅	[illegible]	

會官定은 此事廢止함

二百十日 ◇平穩通過◇

九月一日(二百十日)午前九時의 各地氣象은如左하야 日本內地는大槪曇雨, 朝鮮은快晴이나 風은和風又는 軟風程度이고 溫度는 日本內地, 朝鮮共히前年에比하야 多少低下되고早冷의念慮가잇다 水稻作況은 南朝鮮地方不良, 西北朝鮮地方多少不良으로서 今後順調로經過하면 平年作(千六百四十萬石)의一割減收程度이라고보이며 過去十個年間의 昭和三, 四年旱害大凶作에다음가는 凶作이라는 悲觀的觀測이有力하다

東京	曇	東軟風	四度低
大阪	雨	東軟風	不變
神戶	小雨	東軟風	不變
下關	曇	西軟風	三度低
京城	晴	東北東軟風	一度低
仁川	薄照	東軟風	一度低
群山	晴	東軟風	稍低
木浦	晴	無風	稍低
釜山	晴	北北東和風	二度低
大邱	晴	無風	二度低
平壤	晴	南東軟風	一度低
鎭南浦	晴	南軟風	一度低

移出米運賃割戾에 當局者態度를非難

生產者에不利를認하면서 撤廢難의無能을暴露

朝鮮米移出에잇서 朝鮮內米穀商이 汽船會社로부터 高率의所謂割戾라는 中間利得을 보는터이며 이에對하야 大阪米穀商에서 自己便에도 朝鮮米穀商과가튼 高率의割戾를 달나는問題로 紛糾가되여오든터이라고함은 旣報한바어니와 目下商工課當局者의 意向을드르면 그調停으로는 朝鮮米穀商이 밧는高率의 割戾中에서 幾分을 떼여서 日本內地米穀商에 보내가지고 解決하는外 달은道理가 업다고한다 그런데 이割戾라는것은 米穀商 그中에잇서도 大商들이 거의獨占하는 中間利得이 되는反面에 生產者의不利가 되다는것을 當局者가 自認하면서도 이것을 撤廢치안코 다만 以上과가튼 紛糾의解除策을 講究한다는것은 當局者의無能을 말하는것이 아니냐는非難이 잇다

撤廢當然이나 急遽斷行은困難

▲山澤商工課長談

米穀商이 高率의割戾는生產者의便으로보아서 不當하다는것이 事實이며딸아서當局으로서도 이것을 撤廢할 豫算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까지 잇서오든것을 急遽히 撤廢하기도 어려웁다 그럼으로 將次機會를 보아서 斷行할생각이다

倫敦金塊又復暴騰

【倫敦三十一日發聯合】 三十一日의倫敦市中 金塊(一)碼는七磅十一片二分一로 前日보다다시十八片二分一의暴騰이며, 買賣高七十五萬五千磅으로 前日의三十四萬五千磅에比하야 四十萬磅激增이엇다

米日爲替少弱

【紐育三十一日發聯合】 卅一日의 米日爲替는 賣二十九弗十五仙으로 一仙低 買二十九弗八十七仙으로 六仙低

▲京爲替(九月一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三分三	二十九弗十六分十五
對英	一志二片十六分五	一志二片八分三

▲大阪爲替(九月一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四分三	二十九弗八分七
對英	一志二片十六分五	一志二片八分三

朝鮮內各米取 八月中賣買高

八月中朝鮮內 各地米穀取引所 賣買高는 알에와갓다 (以下單位石)

	總賣買	最高	最低	平均
▲釜山	九二三、〇〇〇	七三、八〇〇	一四、〇〇〇	三四、二〇〇
▲大邱	二、二四〇、八〇〇	一五六、八〇〇	三三、四〇〇	八六、〇〇〇
▲木浦	六八六、二〇〇	六三、二〇〇	二五、四〇〇	[illegible]
▲群山	[illegible]	九三、八〇〇	七〇、八〇〇	三四、七〇〇
▲朝取	二、六九八、六〇〇	二四九、二〇〇	三三、〇〇〇	一二〇、〇〇〇

米調査會委員

【東京電話】 米穀對策調査委員은三十一日 午後九時內閣에서發表한것은 알에와갓다 河田書記官長 金森法制局長 各政務次官, 大藏, 農林, 商工, 拓務各次官, 貴族院議員上山滿之進氏以下十名, 衆議院議員俵孫一氏以下十名 橋本傳左衛門氏以下九名

調査會臨時委員被仰付 今井田朝鮮總督府政務總監 平塚臺灣總督府總務長官以下八名

渡邊朝鮮總督府農林局長 中瀨臺灣總督府殖產局長以下十二名 調査會幹事被仰付

米穀對策調査會 ◇……官制의內容

【東京電話】 米穀對策調査會官制는 알에와갓다 昭和九年九月一日勅令第二百五十六號

▲第一條=米穀對策調査會는內閣總理大臣의 監督에屬하고 그諮問에 應하야米穀對策에 關한重要事項을 調査審議함

▲第二條=調査會는 會長一人 副會長二人及委員三十五人以內로서이것을 組織함 特別한事項을 調査硏究키爲하야 必要한때는 臨時委員을置함을得함

▲第三條=會長은 內閣總理大臣으로서 이에當함 副會長은農林大臣及大藏大臣으로서 이에當하며 委員及臨時委員은內閣總理大臣의 奏請에依하야 內閣에서이것을命함

▲第四條=會長은 會務를總理함 副會長은 會長을 輔佐하고 會長이事故한때는 內閣總理大臣의 指名하는副會長이그職務를代理함

▲第五條=調査會에 幹事를置하고 內閣總理大臣의 奏請에依하야內閣에서 이를命함 幹事는上司의指揮를밧고 庶務를整理함

▲第六條=調査會에 書記를置하고 內閣에서이를命함 書記는上司의指揮를바더 庶務에從事함

▲附則=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此를施行하고 米穀統制調査會는 이를廢止함

米穀對策은 專賣와同樣

民政黨案의骨子

【東京電話】 民政黨의米穀對策要綱案은 三十一日의 委員會議에서 財政的方面으로부터 意見이續出하야 畢竟決定치못하고 相當히修正케되는바 民政黨案의骨子는 供給을 專賣와가티하고 需要는產業組合의 統制에一任한다는 所謂實的統制案이며 그立案에當하야는 委員長小山壽松氏를 中心으로若槻總裁도數次參劃하야 苦心한것이다 딸라서 一日의委員會에서 決定되는대로 이것을 發表하고 다시 米穀對策 特別委員會에서 決定함을 기다려 連絡委員이 政友會에 提出한뒤 不遠協定케하는 同時에政府의 米穀對策調査會委員에도 이것을提示할터인데 同黨案은 政府의對案決定에 相當히重大한 礎石을投할것으로觀測된다

監査役問題로 朝信의醜態暴露

財界人事에큰衝動

朝鮮信託에서는 去月卅日의臨時總會에서 朝鮮土地信託의末森氏를 監査役에 選任하얏는데 末森氏는 朝信의株主가아니오 또同氏에게 何等交涉이업시荒井土地信託社長의 推薦으로 監査役에 選任하야同氏로부터 就任拒絕을表示한때문에 問題가惹起되엇든바 朝信側에서는 極力으로同氏의 就任을懇請하고잇다한다

까 末森氏를朝信監査役에안치고저土信社長인 荒井初太郎氏가朝信에推薦함에 本人인末森氏와 充分한理解가업섯고 朝信의荒井氏말만듯고 選任한때문에 末森氏는 憤慨하야 本人意思를 무시한이러處事에는 머리를숙일수 업다고 斷然就任을拒絕한때문이라한다

問題發端은 不愼重所致

谷社長은唐皇 理財課에諒解要求

朝信은 土地信託과의合同工作에잇서 難關에難關을 거듭하와서는데 이에同社의 對者인末 土地信託事務를 朝信臨時總會 選任한더잇다 土地信託이 合同으로解散되니 問題가複雜해저서 財界에衝動을주게되니 이에창황해진

末森氏就任을 荒井氏가交涉

信側에서는 谷社長이一日午前 總督府로理財課長을 訪問하고 經過報告를하는同時 諒解를求한바잇섯다

末森氏를 獨斷으로推薦하야問題를이르킨 荒井氏는一日午前부터午後에 直하야 朝鮮取引所에서 末森氏를 訪問하야 問題를擴大식히지말고 朝信의誠意와好意를생각하고 就任하라고交涉한바 잇섯스며 朝信과一日夜에末森氏가만나리라는데 同氏의最後態度가 果然어떠할지注目된다

官僚式任命 財界서惡評

이번問題에對하야 財界方面에서는 朝信社長谷氏가前知事로잇섯든만큼 末森氏問題도知事부터前에 官吏를 이리저리任免하던式으로한때문이라하야 許判이조치못하고 全般的으로 官僚出身의 重役이 會社를 經營하는것은 會社의 健全한 發展을 저해한다는 批判이 잇다

就任承諾안할듯

失態責任者는荒井氏 色部朝銀理事談

末森氏本人에게 말이업시自意대로選任한것은 큰잘못이다 末森氏도말하면 이미就任拒絕을 表示하고 責任은 荒井氏에게 크며 朝信側으로말할지라도 荒井氏推薦만가지고 本人에게 말도업시總會에서選任한것은 上面으로보드라도 不愼重하다 本人이 就任을 承諾치는못할것으로보인다云云

商況(一日)

株 國交念慮 續崩

前場續落 北鐵列車事件에 發端하야 日蘇關係를걱정하고 戰爭까지豫想케되어 新甫期待도 水泡에歸하고 投物이續出하야 東新은百四十五圓丁大新八十九圓四十錢 朝新二十八圓九十錢 日產百三十錢 各圓門揃不勢이다가 大引은 東新百四十五圓五十錢大新八十九圓六十錢 朝新二十九圓丁이엇스며 朝取六十一圓五十錢 日產百五圓六十錢 日魯二十八圓丁으로 八圓十錢安 拓新十圓二十錢이엇든바 前場步調는如左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後休 後場은例休인데 大阪短期氣配가一、二十圓高低 或不變인으로當地氣配도 大體不變이오 來週初安定을가대리고잇섯다

嫌氣投物續出 新甫期待水泡

當然一伸이期待되고 貿易의大出超까지 보이어新甫期待가相當하고九月市勢를 밋엇섯스나 意外로北鐵列車轉覆事件에 發端하야 日蘇國交關係를念慮케되어軟派의 勿失好機的突込賣와『마바라』側의 爭先投出로昨後場下放된뒤를이어今前場도回復되지못하고 新甫期待가水泡에歸하야 東新百五十五圓臺東京과大阪은四圓臺大新九十圓臺 關門割等의 續落이엇든데 當地上鞘買가자미업서보이엇스며 事己至此하야는 市勢의急轉回는보다도먼서 目前安定을기대릴 수밧게업섯다

國交念慮로 開戰까지 떠러진것은 겨우 요만치박게안되면서 市勢가 그만큼 强한것이아닐가? 寧히惡目買의때라고 버틔고저한다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二、六五
二回四分利	[illegible]
佛貨四分利	一八四、三五

▲東邦電力 八六、三〇

期待에背馳나 惡化는아니다 突込賣는不可

日蘇關係의惡化를 撤心이輻輳하야 九月期待가新甫와接近되엇든바 形勢如何로는 意外의大分岐가 잇슬지도모르나 冷靜히생각하면 開戰이 업다할수 업는것으로 開戰에 對한 念慮로 根本的惡化를 생각하고 從하야 低價에 賣込하는것은 危險하다고 볼수 잇다

株界六感

日蘇關係를걱정하야 新甫는 完全히 期待에背馳되고 投賣 ×

開戰이不可能하다는 前提下에서市勢의前途를 一時的이오株界根本事情惡化는 아니라할것 ×

倫敦金塊暴騰의 影響도잇겟지만 日產은鍋强之勢로 暴騰하다 ×

八月十四日의 東京東新百九十一圓丁에서 百四十四圓八十錢으로 떠러진뎨도 强氣나하고 시비할사람이잇슬지모르나 ×

國交念慮로 開戰까지 떠러진것은 겨우 요만치박게안되면서

安取更生資金 中銀서融通決定

株式短期取引開始

【安東電話】 安東取引所에서는 九月末로써解散의運命을當하게되엿는바 株式短期取引所를開始키로되어所要資金의 低利融通을 滿洲中央銀行을通하야 滿洲國政府에 交涉中이든바 二十八萬五千圓(兩)을 三個年據置年賦 償還利率年二分의條件으로 融通키로決定하얏는데 該資金의用途는如左하다 即二十八萬五千圓中十萬圓은別途新設의代行會社에 貸付하고 十八萬五千圓은 舊取株主에게 交付하야 新設代行會社의 財產과 安取株六千五百株를 擔保로 提供하얏다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九百三十枚

▲滿洲工廠 [illegible] ▲東滿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日滿[illegible] ▲撫順窯業 [illegible] ▲櫻出機 [illegible] ▲國光레온 [illegible] ▲大同電力新 [illegible] ▲東京人絹 [illegible] ▲德山鐵鈑 [illegible] ▲宇治電 [illegible] ▲日本電力 [illegible] ▲三菱鑛業 [illegible] ▲大同產業 [illegible] ▲人造羊毛 [illegible] ▲山陽工作新 [illegible] ▲東洋레온新 [illegible] ▲日本石油新 [illegible] ▲鍾華人絹 [illegible] ▲小田急 [illegible] ▲窒素新 [illegible] ▲人造肥料新 [illegible] ▲新興人絹 [illegible] ▲金剛電鐵新 [illegible] ▲東京電燈 [illegible] ▲玉川水道新 [illegible] ▲三菱重工業 [illegible] ▲鮮鐵四新 [illegible] ▲에타파이新 [illegible] ▲第二에타파이 [illegible] ▲福井人絹 [illegible] ▲東邦電力 [illegible]

期米

大下鞘로發會 厄日無事로大瓦落

前場瓦落 今朝阪地는中限二十六圓九十九錢으로 新甫十一限은 二十六圓三十六錢인 六十三丁下鞘로發會하고 當地는中限二十三圓八十錢으로新甫十一限은 二十三圓四十錢인四十丁下鞘로 發會된後阪地稍漸落으로 五圓九十六錢에止場함을作하야 三圓〇九錢으로 十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下漲 後場은二十三圓二十一錢에十一丁又高으로 後場二圓二十一錢에 續返이엇스나 三圓十九錢에更張하야고 別爛가티止場하나

大下鞘로發會 値頃의關係?

同鞘나或은落는鞘로 發會될것으로 豫想하엿든 新甫七限은 今朝阪地는六十三丁下鞘 東京은 四十七丁下鞘當地는 四十丁下鞘인意外大下鞘로發會되엇다 要하면昭和六年以來三個年間의薄上鞘이엇슴을보아서는더욱이凶作의今年으로서依例히薄上鞘일것을否定하지못할것이나 그리나 今年은大豐作의翌年으로서

◇ 먼저解除한貯藏者는 政府의東澤을입엇다할수잇스나아즉解除를하지못한貯藏者도서는大損害

◇ 그야그뿐이라 新穀期의低價에賣出하고 減穀期의高價에買食하는農民에게 利害關係가米何如?

◇ 新穀期를압두고 또쌀갑이떠러지니 政府의所謂農民救濟의意味가何在?

◇ 찰아리米統法을放棄하고物價自然에 放任하는것이 人民의福利가아닐는지다시한번考慮할問題

朝取期米取組高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米豆餘話

◇ 絕對高米價政策을 遂行하여오든政府는 슬며시米統法을 放棄하는모양?

◇ 三十圓五十錢以上이아니면拂下하지안키로 聲明한一千二百萬石에對한損失은 政府가 當할원이어니와

◇ 高價에解除하기로한 長貯正租의殘存分은 如何히處理할것인가?

大回拂下遲延 解除도亦然?

政府는 豫米不足의 수穀新米供給하라는그것보다도 新穀期가 壓迫하엿다 그래서米價는그實勢의 壓迫을受하야 阪地는高價에서 二百餘丁 當地는 百五十餘丁의 慘落을告한바되엇다 政府는 端境期以內에殘餘한 朝鮮貯租九十萬石의解除와 調節買上米八十萬石의拂下는 斷然코遲延할것을豫想할수잇스며 政府의그自身으로서도 解除와拂下를繼續하지아을것으로 推測하고잇다 그러한關係도보아서深入의 直落은期待키難할모양이다

各地正米

京城不變 定期의不勢를移하얏슴과 午後에拂下가잇는等으로 買氣乏이오 賣行不振이엇는데 市況은㊉三等二四、四〇 四等二三、二五 一等白米一八〇〇

仁川下支 今日午後에決定된 拂下의成績待로 日本內地移出側揃場은모다 買控함으로 市況은活氣가乏하얏는데 ㊂三等二三、四〇 四等二三、二五 一等白米一〇、〇〇

南浦軟化 月初이나마定期低落으로精米側이低價를狙하고冷靜함으로市況이閑散하야 氣配도多少低下로 十錢軟化인㊉三等二四、一〇 四等二四、〇〇 一等白米一〇、〇〇

木浦下漲 川廻一輛, 第二次拂下決定待로 氣迷가深하고 取引閑散이나마適品薄으로써 持側이賣惜하야 同樣下漲인㊂三等二四、五〇 四等二四、三〇 一等白米一〇、二〇

群山軟弱 地方川廻一巡으로 賣物이一段減少되엇스나 定期低과 極度의日本內地不買로 賣軟弱의市況이呈하야 品에依하야 十錢低인◎三等二三、八〇 四等二三、六〇 一等白米一一、四〇

釜山引締 川廻三千叺在庫의整理도一巡된듯하야 賣物은急減되고 月初이라當川側의補充買進이잇서 賣行이多少良好하며 氣配十錢高인◎三等二三、五〇 四等二三、二〇 一等白米一〇、一六

大邱强含 越月의今朝는오래동안躊躇되던實需에切迫되어 小口나마 買進함으로 大體人氣는十錢强含인◎三等二三、〇〇

堂島崩落不勢 【大阪電話】 二百十日의 無難과拂下米의念慮도 小川派의優勢賣가잇서新低의不勢이엇다 ▲賣方 東京側, 朝鮮側, 中東側, 日新側 京都側 ▲買方 堤淺側, 地場强氣側, 三品側, 西山側, 西側, 北國側, 目前側

▲先限 [illegible]

金融(一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卅一日)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一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一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키가豆期麥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 [illegible]

鰯油沖價 [illegible]

仁川期米 劉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東新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實賣高 [illegible]

株式(一日)

朝取短期 [illegible]

商品(一日)

海外砂糖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期米(一日)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實賣高 [illegible]

朝取期入高 [illegible]

朝取取組高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